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12
1978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퉁기
엘튼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매리온 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던 엘 라슨
리처드 지 스코트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1
방문 교육의 목적.....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2
성탄절의 참의미..... 제프리 알 홀랜드..... 7
친절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 케네스 더블류 간프리.....10
우리는 계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14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돈 시그 밀러.....21
심심풀이..... 23
어린 양.....마가렛 엘린.....24
즐거운 하누카.....보니 뉴튼.....27
시온을 찾아서..... 글렌 엠 레오나드.....29
시온진영..... 로날드 더블류 위커.....37
죽은자를 위한 신전사업에 관한 새로운 활동.....38
그리스도와 성탄절.....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44
지역 지도자 메시지..... 최 동현.....45
지역 소식.....46
1978년도 성도의 벗 색인.....50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61호, 제14권 제12호
등 목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1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팅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와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선 소유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강의 왕이시요 메시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 유에서 탄생하신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구속주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수세기 전에 예언자 이사야와 니코이는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미가와 엘마는 예수의 탄생지를 예견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레이먼인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들은 그의 지상에서의 성역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호세아도 그가 애급으로 가서 있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있기 전에 고대의 예언자들은 구속의 영광, 그의 부활의 기적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문자 그대로의 부활과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를 위한 영생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은 가장 훌륭한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인 침례 요한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성역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는 여러 세기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대 예언자들의 정신과 구세주 자신의 말씀으로써 우리는 금년에 그의 탄생을 기념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9)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마 6 : 2)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 : 35)

“담대하라”(요 16 : 33)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눅 6 : 27)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

그러나 해마다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한복음 15 : 10)

예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얻게 되는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요 15 : 11)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즐거운 절기가 온 인류에게 준비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관장단

Spencer W. Love
Waldorf James
W. H. Ramsey

방문 교육의 목적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킴블 대관장은 1958년 9월 16일, 그가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으로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솔트레이크 모뉴먼트 파크 스테이크에서 열린 방문 교사 대회에서 하신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내가 상호부조회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매우 어렸을 때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 아리조나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에게는 여섯 자녀가 있었는데 그후 또 다섯 자녀를 더 낳으셨으며 그 기간 동안 계속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시간 새로운 고장은 공동우물에서 물을 퍼서 써야 했으며, 파리가 어찌나 많은지 저녁에 망사문 밖으로는 거의 밖을 내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티부스 종류의 열병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질병이 만연해 있었으며, 의료의 혜택이라곤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물론 간호원이나 훈련받은 의사가 없었으며 겨우 시골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어머니의 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루스(또는 텔버트 또는 고든)

에게 어린 동생을 맡기고는 스미스 자매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쌍둥이 동생이 방금 죽었고 다른 아이들도 티프스 열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여러 자매들과 함께 존스 자매의 두 아이들의 수의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일기가 여러 장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상호부조회를 알게 된 시초였습니다. 또한 나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사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기로 상호부조회는 영적 및 도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와드 회원의 물질적인 면까지도 돌보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방문 교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의 임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 복음 교사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란 간단히 말해서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한달 동안에 이십분이 아니라 항상...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여”...문만 두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힘을 주며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악행이 없는지, ...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성 20 : 53-54)

참으로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날씨, 정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와드에서 행한 행사, 와드의 분리, 감독단의 재편성,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개편, 그 밖에 와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방문 시간을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자매가 다른 자매의 집에 가서 해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없애고 그대신 교회의 모든

관리 역원, 교회 자체, 교회의 교리, 교회의 정책 그리고 행정 등을 지지하고 부축하는 것이야 말로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데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격려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는 수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영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가르치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 오도록 권유해야” (교성 20 : 59) 합니다. 이것은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방문 교사가 되려면 높은 목적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여야 하며, 예리한 통찰력, 식을 줄 모르는 무서운 열의,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큰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성 42 : 14) 여러분의 사업이 신권 사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은 “성경과 물문경에 있는…복음의 원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성 42 : 12 참조) 단순한 윤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윤리로 화제를 돌려 설명하고, 영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자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각 자매에게 자기 다른 메시지를 자기 다른 방법으로 자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자기 다른 간증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습니다. 교사가 가

르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성 88 : 77)

단순한 방문과 친구로 사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의 영원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사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중요한 축매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간증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고 여러분의 간증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경전 연구자들이 일생을 경전 연구로 보냅니다. 그들은 경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토론을 할 수도 있으며, 우리보다 경전 지식에 있어서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의 간증에 대하여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공식적인 방법으로만 간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방문 교사는 그들이 방문하는 가정의 자매보다 우월해야 하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주어야 합니다. 방문 교사는 정력에서, 통찰력에서, 사려깊음에서, 간증에서, 모든 면에서 월등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38편 23절부터의 말씀은 나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임명한 직책에 따라 서로 가르치라.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아들 열 둘을 가졌는데 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면 저

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섬기나, 아버지
 자가 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예복을 입
 고 여기에 있으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이르고
 나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나는 공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를 이유로 너희에게 말하거
 니와 내가 존재함같이 진실하다.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
 이 아니니라” (교리와 성약 38 : 23, 24,
 26, 27)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누더기를 입고
 사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의 비유 말씀에서와 같이 예복을 입
 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임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열의, 통찰력 그
 리고 목적을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는 우리가 “오늘은 내가 오래 기다렸던
 날입니다. 나는 내가 맡은 자매들의 가
 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또 높이 고양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니
 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방문 교사로 나가야 하는구나”라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
 러분은 올바르게 조직된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
 리와 성약 88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고 내 앞에서 손 발을 성결케 하여
 내가 너희를 순결하게 할지어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의
 피로부터 성결케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며” (교성 88 : 74-75)

여러분이 한 가정이라도 소홀히 해서
 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방문
 을 반기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넷,
 다섯, 여섯, 또는 일곱 가정에 대한 책
 임을 받아들이고는 그들에게 영적인 면
 에서 누더기 옷을 입혀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매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쓸데없는 이
 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영
 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
 늘날 교회의 많은 활동 회원들이 여려
 분이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새로운
 모습과 이해를 주었기 때문에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는 예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막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지평선을 넓혀 주었습
 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새로운 무엇
 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일생동안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와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매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과 가정까지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비활동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자매의 남편은 대개는 마참가지이
 며, 자녀들 역시 프로그램을 장난삼아
 대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물론 예
 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기에서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
 람들은 왕국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못합
 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적
 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 : 6) 말만으
 로 어느 곳이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
 아닙니다.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을 계
 획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방문 교육
 을 떠나기 전에 그날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시는 자매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식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는 요구되지 않은 것도 많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매의 가정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이력저력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사람(고전 9:26)이나 다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집안으로 들이기를 꺼려 하는 여인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을 집안으로 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싫어도 마지못해 여러분을 집안에 들어 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떠나기도 전에 빨리 가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에 확실히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 문은 열어 주지만 여러분이 들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님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 17:21)

주님께서 인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과 수단과 힘을 갖고 계십니다. 엘마를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엘마가 하루 아침에 급변하여 위대한 주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모 27장 참조)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 며칠 사이에 위대한 권능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 9장 참조) 이와 같은 차이를 이루어 낸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의 지혜로 이와 같이 행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은 눈

으로 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슴을 치셨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것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여자는 결코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자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합당하게 접근한다면 어느 누구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이라는 말은 테일러 대관장님이 붙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경 첫번 책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니파이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휘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모두 없애 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그 부름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와드 회장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라면 그 부름이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을 통하여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기는 쉽습니다. 중도

에서 단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니파이의 늦쇠판을 얻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판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벤에게 뇌물을 주고도 판을 그의 손에서 가져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관철시킬 수 없었으며 그들의 목숨은 실 한 오라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소년이 굳게 닫힌 성곽과 아무에게나 열릴 수 없는 문을 통하여 성안으로 걸어들어 갔고 누구도 들어 갈 수 없는 마당과 감시병들이 지키는 창고에 들어가 기록을 가지고 나와 불신앙으로 멸망된 사람들과 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니일 3-4장 참조)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 편에 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데 충분한 정력과 수고와 계획과 기도를 드린다면 그 일은 결단코 완수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진실성과 겸손함과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율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가를 질문받으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7-39)

주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매의 가정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충분한 복음의 지식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엇이든지 성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로이드 시 더글라스(1877-1951)라는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연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을 대항하여 반항한다. 여러 해 동안 나무한 그루는 그를 막고 있는 벽에 대하여 소리없는 교전을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날 벽이 흔들린다. 이것은 나무가 갑자기 어떤 비상한 힘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 방어와 자기 해방을 위하여 노력한 결실인 것이다. 오랫동안 감춰있던 나무는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였다. 자연의 진로는 막을 수 없었다.”(로이드 시 더글라스, 예복, 보스턴, 1947)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포도나무, 작은 뿌리가 벽을 무너뜨리고 돌바위로 포겔 수 있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서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게 하고 온전히 활동 회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자매님들의 자랑스러운 사업과 여러분의 훌륭한 성품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성탄절의 참의미

제프리 알 홀랜드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에 얽힌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은 이 성탄절의 이야기가 극심한 빈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나는 누가 “사관에 남아 있는 방이 없음이라”고 쓰지 않고 “사관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눅2:7)고 기록한 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내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그처럼 바쁜 때일지라도 숙소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감역에는 “사관에서 그들에게 방을 내어 줄 사람이 없었더라”고 기록된 것

도 역시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들 두 사람이 모두 극히 가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아기가 출생한 후에 부모가 드리는 속죄제로서 어린 양 대신 비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 122:8 참조)

동방의 박사들이 후에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서 수백리나 되는 먼 곳(아마 페르샤 지방)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 밤에 그곳에 도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 왔을 때 예수는 “어린 아

이”였으며 그들이 “집”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 2 : 11)

이 성스러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마 선물을 사고 만들고 포장하고 장식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선물을 준비하게 한 아기(그리고 그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겸손하게 바쳐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해마다, 그러한 자세로 선물을 해야 합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증언할 수 있듯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하여 나보다 더 들뜬 마음을 갖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요즈음 요셉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을 키우기에 합당한 강하고 조용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율법서를 가르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 앉아서 예수님께 그가 누구이며 결국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일년을 마쳤을 때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모두 학생이었고 구내밖의 아파트의 집세를 물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절반이 고장난 배터리를 가진 낡은 복스바겐을 몰고 다녔습니다. 새 것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 다가옴을 인식하였을 때 나는 내 아내가 깨끗한 요와 소독된 기구, 간호원, 노련한 의사를 두고 첫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내 아내나 아기가 가장 좋은 개인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할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을 요셉이 친구나 친척도 없고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서 느꼈을 느낌과 비교해 봅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해산”의 시간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400리를 걸어 와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마리아의 조용한 용기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의 눈에 띄이지 않고 그들은 인간의 무리에서 동물의 마구간으로 내려 가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동물의 오물을 치우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급히 제일 깨끗한 짚을 찾아 모으고 동물을 뒤로 밀어 놓을 때 요셉이 쓰러진 눈물을 느끼지 않았을지의심스럽습니다. 나는 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어린 아기가 출생하는 환경으로 이보다 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이곳이 왕이 태어나기에 적합한 곳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는 이처럼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녀가 좀더 안락한 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들이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야 옳다는 것인가?”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아마 이 부모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모든 인간의 고통과 실망보다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는 혜택을 받지 않고 태어난 자들의 고초를 나누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은혜를 입은 여자, 마리아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그녀의 일생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는 네가

모든 여인들 중에서 택함을 입어 축복 받았음이라.”(눅 1:28, 영감역) 그녀의 준비성의 깊이는 그녀의 순결과 성숙을 보며 주는 다음 대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어머니가 생명이 있는 영혼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태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며 자라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아기를 해산할 때 갖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옆에서 서서 지켜 보지만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느끼며 잊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또 다시 베를레헴에서 있었던 기록한 밤에 대하여 누가 묘사한 주의 깊은 문구를 생각하였습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있어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눅 2:6-7) 이 간단한 설명은 아기 자신 다음으로 마리아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며 왕후이고 모든 어머니들 중의 어머니로서 이 극적인 순간의 가장 장엄한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귀에 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남편을 제외하고 그녀 혼자 있었음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여인으로서 첫 아이를 배고 있는 젊은 부인으로서 그녀의 어머니나 아주머니나 언니나 또는 친구라도 곁에 있어서 해산을 도와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아들의 탄생은 유대 땅의 모든 부인의 도움과 주의를 요구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경험이 없던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첫 아들을 혼자 낳아 여행할 때 일부러 가지고 온 조그마한 형겔에 싸서 아마도 짚 벚게에 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양 쪽에서 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라고 노래하

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라 이름 하는 아기 이 세명 뿐이었습니다.

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 새로운 별이 그 목적을 유난히 발하는 그 순간에 아마도 어린 목수와 아름다운 동정녀 어머니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할 능력이 없는 마굿간의 조용한 동물들만 지켜 보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조만간에 찾아 왔을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쫓아 왔을 것입니다. 아기와 함께 성탄절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찬송가, 190장)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 선물, 그의 탄생, 자신의 어린 시절 등에 대한 상황을 회상하고, 해의 왕국의 모든 영혼에게 순결과 신앙과 겸손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번 어린 아이들의 눈을 바라 보며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그러므로 성탄절은 오랜 세기를 통하여 어린이를 위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캐롤이 어린이 노래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남달리 깊은 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리신 예수 놀라리 없어
아름다우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귀하신 예수여 날 굽어보사
새벽까지 나함께 제십소서
주 예수여 내 곁에 제십소서
사랑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이 축복하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합소서
(다함께 노래를, F-2페이지)*

제프 홀랜드 형제는 바운티풀 유타 센트럴 스테이크, 바운티풀 제44와드 회원이다.

친절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

케네스 더블류 갈프리

16년 동안 교회 역사를 조사하고 초기 몰몬 역사를 상당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성품은 그의 친절이었다. 이 위대한 성품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온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까지 확대된 것 같다. 요셉은 미주우리주, 리버티감옥에 몇 동료들과 함께 수감되었을 때 아내 엠마에게 몇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자주 자녀들의 건강과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물었다. 큰 관심을 나타낸 한 편지에서 그는 자녀에 대하여 묻고 또한 그가 사랑과 친절로 돌보아 주던 그의 애마 조안나와 애견 울드 메이저에 대하여도 안부를 물었다.

요셉과 엠마가 쌍둥이인 미덕 형제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시켰고,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폭도들의 만행 때에 살아남은 줄리아를 양육시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극도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한 후 줄리아는 엠마 스미스에게 돌아와서 그녀가 어렸을 때 누렸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다. 아마 교회 초기 성도들의 일지를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친절한 행동이 언급되어 있을 것이다.

1841년에 아버지인 존 위커, 어머니인 리디아 아담스 홈스 위커, 그리고 그들의 열 자녀로 되어 있는 위커 가족이 나부로 이주해 왔다. 이 충실한 가족은 1838년과 1839년 무서운 미주우리주의 핍박과 헨츠 밀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가족이었다. 매우 가난한 이 가족은 소망과 큰 기대를 갖고 몰몬 본부에 도착하였다. 삼촌 집에 머문 첫날 밤에 그들은 요셉 스미스에게 소개되었다. 그해 여름에 위커 가정에는 큰 시련이 닥쳐 왔고 위커 부인의 건강은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요셉은 엠마와 함께 위커 부인에게 가서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환경의 변화가 그녀의 건강 상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오랫동안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자 아직도 아픈 리디아는 스미스 가족에게 집으로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는 이미 겨울이 온 후였으므로 스미스 가족은 그녀를 담요로 둘러주고 그녀의 침대를 썰매에 실어 조심스럽게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자녀를 모두 불러서는 결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의롭게 살라고 권고하였다. 조용히 눈을 감

은 얼굴에는 미소가 퍼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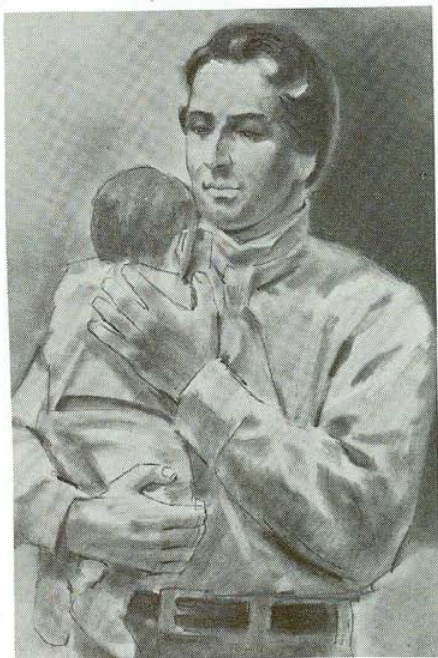
워커 자매는 열명의 어머니 잃은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막내는 채 두살도 되기 전이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워커 형제의 건강을 갑자기 쇠약하게 하였으며 가족은 아버지마저 돌아가실 것을 염려하였다.

그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는 것을 안 요셉은 또 다시 그 가족을 도우러 갔다. 요셉은 워커 형제에게 요양하지 않으면 아내와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제안하였다. “형제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갖고 있소. 당분간 내 집은 그들의 집이 될 것이요. 형제님에게 충고하건대, 집을 팔고 자녀를 좋은 친구들에게 맡기시오. 큰 아이들 네 명은 내 집으로 데려가서 친자식처럼 키워 주겠소. 어린 아이들이 만족해 하지 않거나, 바르게 대접받지 못한다면 형제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집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겠소”

이 제언이 받아들여졌다. 루시는 예언자가 자주 그의 마차를 그들에게 빌려 주어 먼 곳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8살된 리디아가 뇌막염에 걸렸다. 그녀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자신의 약속도 이행하기 위하여 예언자는 리디아를 그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식처럼 간호해 주었으나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서 헤메다가 결국 어머니 곁으로 떠나고 말았다. 엠마와 요셉은 리디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린 리디아를 최후의 안식처에 안치시켜 주었다. 나머지 아이들도 하나씩 하나씩 예언자의 집을 찾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예언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게 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의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들은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결코 요셉과 엠마가 그들 가족에게 보여 준 친절과 사랑과 진실한 배려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팔리 피 프렛의 양녀, 매리 앤 스톤스는 그녀의 비출판 자서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녀의 가족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예언자의 위대한 친절을 말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가족과 영국 이민단과 함께 미주우리주, 세인트 루이스를 거쳐 돌아올때 그들은 추운 날씨와 거의 얼어붙다시피한 미주우리강에 떠있는 큰 얼음 덩이들 때문에 너 주나 지체 하여야 했다. 마침내 그들이 나부에 도착하였을때 예언자 요셉을 보고자하는 영국 이주민들의 열망도 컸지만 그들의 안전에 대한 나부 성도들의 염려는 훨씬 더 컸었다. 그리하여 요셉과 하이람과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새로 오는 이주민



들을 맞이하였다. 프랫 장로는 무리에게 두명의 근면한 지도자를 소개하였으며, 프랫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 그들의 가정으로 갔으며 예언자는 프랫이 있는 보우트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인사를 나눈 뒤, 그는 앉아서 어린 소년, 팔리와 베이단을 무릎에 앉혔다. 무척 사랑스러운 듯 보였다. 프랫 형제가 세 아이를 데리고 떠났는데 다섯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요셉 형제는 좋아요, 좋아요 팔리 형제, 한 다발 데리고 오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재회의 기쁨이 가져다 주는 일반적인 감정을 아는 프랫 형제는 “우리가 돌아 온 것이 언짢으시다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군요”하며 기쁨의 눈

물을 흘렸다.

프랫 장로의 말은 마술에 걸린 듯한 분위기를 깨뜨렸으며, 서로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기쁨을 만끽하였다. 요셉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팔리 형제, 식구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 갑시다. 얼마 멀지 않습니다. 먼 여행을 하고 왔으니 좀 편히 쉬어야지요.” 몸이 불편한 프랫 자매는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혀서 호지 형제와 요셉의 경호원들에 의하여 예언자의 집으로 모셔졌고, 온 가족이 특별한 저녁을 기쁘게 마지하게 되었다.

예언자의 친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루 미쳤다. 모든 사람에 대한 예언자의 염려가 교회 초기 흑인 개종자인 제인 이 매닝이 1895년에 쓴 글에 잘 묘사되어 있다. 1842년에 매닝 자매는 코네티컷에서 개종하였다. 상당한 개인적인 희생과 큰 모험을 치루면서 몇몇 흑인 교회 회원과 함께 나부로 갔다. 그들의 구두는 다 닳고 발은 몹시 아팠고 발가락이 갈라져 피가 흘러 “땅 위에 뚜렷하게 남는 피 발자국을 볼 수 있었다.” 이 용감한 그룹이 일리노이주 포리아에 도착하자 주당국은 그들의 서류가 정리되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였다. 서류를 정리해서 제시하자 그들은 자유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어 물이 목에까지 차는 깊은 강을 건너기도 하였다. 마침내 나부에 도착한 그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집으로 인도되었는데, 그때를 제인은 이같이 기록하고 있다.

“엠마 자매님이 문에 서서 친절하게 들어 오라고 말해 주었다. 요셉 형제는 그곳에 있던 몇몇 백인 자매들에게, 자매님들, 오늘 저녁에는 방금 도착한 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방을 쓰십시오
라고 말했다. 요셉 형제는 방 들레에
등그렇게 의자를 놓고는 나가서 엠마
자매와 버니셀 박사를 데리고 들어와
우리에게 인사시켜 주었다. 요셉 형제
는 내 옆에 자리를 잡고는 나에게 이
작은 그룹을 이끌어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
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셨
다. 그가 나에게 여행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고 해서 나는 앞
서 언급한 것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
였다. 지금은 많은 부분을 잊었다. 요
셉 형제는 버니셀 박사의 무릎을 치면
서, ‘어떻게 생각하오? 박사, 이게 바
로 신앙이 아니겠소?’ 라고 말하자 박
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정말 그렇군
요. 만일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
더라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 갔을 겁
니다.’”

이 그룹은 마땅한 거처가 마련될 때
까지 꼬박 일 주일 동안 예언자의 집에
서 머물었다. 예언자는 매일 아침 그들
의 방에 와서 잘 지냈는지 물어 보았으
며 하루는 여행중에 옷을 잃은 제인에
게 새 옷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다
른 동료들은 모두 거처를 구하여 나갔
으나 제인 혼자 구하지 못하고 울고 있
는 것을 본 요셉은 방을 나가 엠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인 매닝에게
싫지 않다면 그의 식구와 함께 있어 달
라고 부탁하였다. 그녀는 그 가족을 위
하여 다림질, 빨래 그리고 요리도 하면
서 요셉과 엠마 스미스의 친절을 보답
하였다. 그녀는 예언자의 집에 있었던
시절을 감사하면서 1908년 4월에 교회
의 충실한 성도로서 세상을 떠났다.

또 한 번은 미시간주에 살고 있는 교
회 회원이 아닌 어느 미망인 에밀리 윌

리엄즈 여사의 어린 딸 아기가 매우 아
팠었다. 며칠 후 의사는 아기가 소생할
가망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요셉 스
미스가 그의 사촌을 방문하기 위하여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요
셉 스미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언자는
그의 부친과 함께 와서 어린 아기 옆에
무릎을 꿇고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였으며, 아기가 회복될 것을 약
속하여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아기가
몸을 뒤쳐기더니 발작 증세가 사라졌고
곧 잠에 빠졌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완
전히 나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한 친절과 사랑의 모범
을 보여 주셨으며, 이것은 오늘날 모든
말일성도에게 주는 목표가 된다. *

“팔리 형제
식구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
갑시다. 얼마 멀지
않습니다. 먼 여행을
하고 났으니 좀 편히
쉬어야지요.”

우리는 계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1891년 11월 1일, 유타주 로간에서 열린 케쉬 스테이크
대회 오후 모임에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하신 말씀

오늘 아침 이 모임에 오기 전 나는 모세스 태쳐 형제의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와 “갈보리 산 위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 보았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조셉 에프스미스 형제가 말했듯이 구세주께서는 정말로 만물보다 낮아지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 지상으로 내려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경륜의 때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육신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후 구세주께서 육신의 몸으로 사역을 하신 짧은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년 반입니다. 그가 겪으신 고초와 그가 행하신 수고—하나님의 교회의 조직,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택하심...그리고 그의 시대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임명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축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뿐만 아니라 계시자 요한을 제외한 그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위하여 순교당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계시자 요한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살아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도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구세주를 바라 보면서 나는 이 루키 산맥에 둘러싸인 이 지역에 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60년 동안 지내 왔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 대관장단을 갖게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 가운데에는 살아 계신 사도들이 있으며 그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왜 6천만 세대 중에서 20만 말일성도가 이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까? 이상의 질문은 말일성도의 마음속에서 대답되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와 사도들이 돌아가신 시대와 다른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질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희생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사도직을 맡고 있던 거룩한 그들은 구세주와 함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우리의 시대



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극히 짧았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지상으로부터 신권을 거두어 가셨으며, 이 신권은 1829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기가 흘렀습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살다가 죽어 영의 세계로 갔었지만 어느 한 영혼도 인간 가운데 나아가 생명과 구원의 복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최선의 이해력에 따라 행동했던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마틴 루터, 위클리프, 쥘리앵, 벨랑톤 등등 그들 시대에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해력에 따라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 이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의식을 수행할 권능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 신권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역사상 이 신권이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적절한 때에 나왔습니다. 그는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별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고대의 축복사와 예언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자였습니다. 물론경이 그의 이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성신의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부터 안수를 받았고, 아버지

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 2서 17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구세주와 같이, 순교당할 때까지 것처럼 행하였습니다. 나는 왜 그때에 예언자와 그의 형 하이람이 순교 당하도록 허락되었는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하늘의 힘과 계시에 의하여 요셉 스미스는 이 위대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기초로서 성임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도록 성임된 자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그가 이 경륜에 대한 간증으로서 그의 피를 흘리도록 성임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셉 스미스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를 가르쳐 주고 지시해 준 이는 천사 즉 그리스도 당시에 살아계셨던 바로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받지 못했던 자들로부터 간증과 가르침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독교 세계가 병합을 해도 그렇게 행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이 핍박을 받고 그들의 집과 가산을 두고 쫓겨 났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발전 성장하

였습니다. 수많은 타락된 영들이 수많은 인간 가족과 함께 이 교회를 대항하여 맞섰으나 그들에게도 이 교회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존속되도록 성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상의 모든 주민들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를 택하시어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교회가 조직된 후 겨우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브리감 영 대판장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브리감 영은 누구입니까? 그는 페인트공이요 유리장사였습니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택하시어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브리감 영을 압니다. 여러분은 브리감 영의 업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이 큰 산맥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업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존 테일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무 선반공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은 정미업자요 농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였던 최상의 야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같은 범속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이 땅의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의 면전에서 살았던 영들을 그(아브라함)의 생전에 보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아브라함서 3:2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아브라함서 3:23) 아브라함은 초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습니다.

말일성도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다거나 그의 뜻과 마음을 밝히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태초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계시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든지 또는 누가 이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지 않을진대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며, 시온이 영광 중에서 일어나고 어린양의 아내, 신부가 위대한 신랑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그가 그의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나는 브리감 시티에서 계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

다. 브리감 영의 생애 전집을 읽어 보면 “주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신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영감과 계시로써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계시를 요셉과 같은 방법으로 주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브리감 영이 받은 계시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구세주의 말씀과 이름으로 교회의 계시와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업의 기초를 놓는 동안 거의 매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사람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항상 덧붙여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교리와 성약 68편 첫번 여섯 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울슨 하이드, 룩 존슨, 라이안 존슨, 그리고 윌리안 이 물테른에게 성신이 인도하심에 따라 백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 : 4)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도 바로 이러한 권능이었습니다. 이 권능으로 영 대관장은 교회를 감리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이와 같은 권능으로 존 테일러 대관장도 교회를 관리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같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일성도라면 누구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거나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며 이 장면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몇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계시로 나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언문으로 불리워지는 그 말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시로 나에게 시온에 있는 많은 회원들이 선언문으로 하여 마음에 심히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에 대한 대관장과 사도의 간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를 받기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계시를 받은 후에는 이러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나는 그것을 브리감시티에서 지난 일요일에 열린 대회에서 실천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그 계명대로 하려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일 성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라고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성도들이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대답한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대답할 것이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하나같이 믿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나라의 법에 위배되며 6천만 국민이 반대하는 다처 결혼을 계속 행하여 신전을 모두 몰수당해 잃고 그곳에서 가질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의식을 갖지 못하고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와 교회 회원 가족의 가정이 모두 감옥에 갇히며 모든 회원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결국 다처 결혼을 중지하는 것), 다처 결혼을 금하는 원칙에 따르고 법에 순종하며 법대로 생활함으로써 예언자와 사도와 가장의 가장이 재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며 신전을 그대로 성도들이 보존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복음 의식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중에 어느 편이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시편과 계시로 다처 결혼을 중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처 결혼을 중지하지 않았더라면 시온의 땅에서 모든 의식이 중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메릴 형제에게도 애드래프슨 형제에게도 록스켈리 형제에게도 레이스맨 형제에게도 그리고 로잔에 있는 이 신전에서 어떤 형제에게도 쿨레는 썩어졌을 것이며 혼란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온 교회에 미치게 되어 우리는 결국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지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방법에 따라 중지하여 예언자와 사도와 가장이 계속 자유인으로 생활하게 하고 신전을 교회가 관리하여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에서 회원들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전 사업이 계속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 일성도들 앞에 내놓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나는 우리가 택하고 있는

이 길을 만일 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을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지도자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관장이 하나님의 영을 잃고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는 영을 잃지도 않았고 배도의 길을 걸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며 이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가를 주셨습니다. 나는 교회 밖의 친구들로부터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권유와 재촉을 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내린 결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은 교회의 회원들도 다소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신전을 우리의 손에서 잃었을 것이요 나는 감옥으로 갔을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도 감옥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을 행하여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일이 나에게 분명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게 쓰도록 한 것을 썼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형제인 조지 큐 케는 형제, 조셉 에프 스미스 형제, 그리고 십이사도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하지 않느니 차라리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군대의 진호를 막아 다른 길로 가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나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된 이 시대에 살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예언자와 사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곳에서 일을 하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 영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는 그를 이어 누가 교회를 이끌든지 상관 없이 영원토록 그 열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와서 신전을 세우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산중에 우리는 세 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죽은 자들이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전에서 계속 사업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 신전이 말일성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끊임없이 신전에 가서 죽은 자를 구속해 주고 산 자에게 축복을 주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가족을 돌보시고, 시온과 이 세대를 돌봐 주실 것이며,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의 권고를 듣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말일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기를 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시온을 불뚝고 세우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방문하러 하고 계시며 그의 사업을 의 안에서 단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할 육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의 표적을 보고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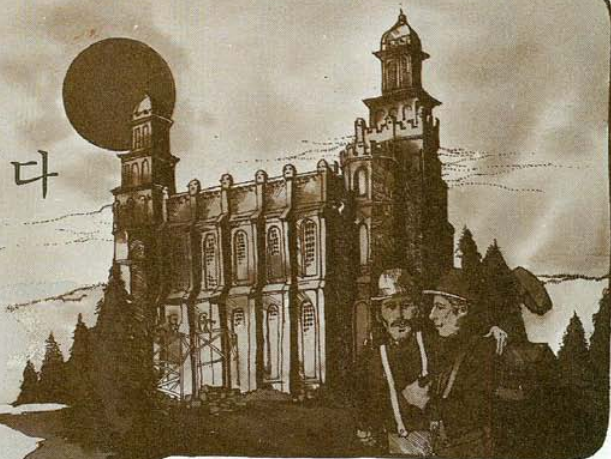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 (교성 68 : 4)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돈 시그밀러

1884년 초, 유타주 로간에는 아름다운 물론 신전이 거의 헌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①

신전 헌납 전날 벨라드 감독의 딸들이 놀고 있을 때...



③

신전이 지어지는 동안 처음부터 신전 공사를 도왔던 헨리 발라드 감독은 멀리 영국에 살았던 선조들의 명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②

두 명의 낯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④

그 중 한 사람이 만팔에게 접은
신문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네 아버지께 갖다드려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된다.
빨리 가 봐 읽어 버리면 안돼



"소녀는 급히
신문을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영국 고향에서 발행된 뉴
베리 주간 신문으로 사흘 전에 발
행된 것이었습니다. 신문 한 면이
뉴베리 공동 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생년월일과 사망 일자로 꽉 차 있
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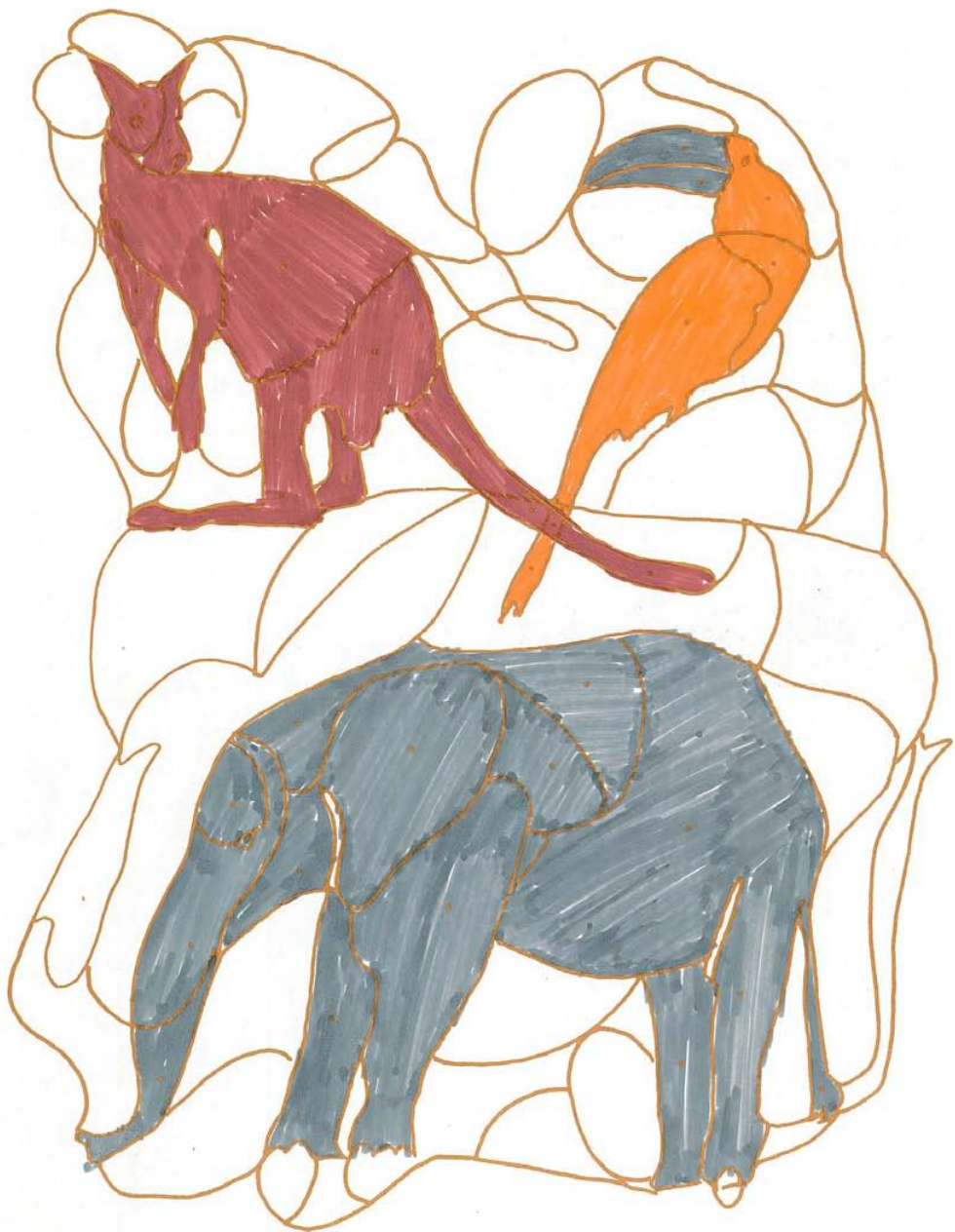
벨라드 감독님, 감독님은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받은 기록에 따라
그들을 위하여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있습니다."



점이 찍혀 있는 칸을 색칠하고, 무슨 동물인지
알아 맞춰 보세요.



심심풀이



가장 나이 어린 목동 조엘이 갈릴리 언덕에 앉아서 양을 쓰다듬고 있을 때 부드러운 손길 같은 밤이 하늘로부터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엘은 컵 모양의 어두운 하늘에서 별들이 촛불처럼 반짝이는 저녁 무렵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의 양도 사랑하였습니다. 긴 나절을 양과 함께 뛰놀다 보면 전혀 의로운 줄을 몰랐습니다. 싸늘한 밤 동안 양의 따스한 체온은 조엘을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이 잠들었을 때, 조엘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밝아요. 아버지” 조엘은 곧은 나무처럼 그의 곁에서

있는 키가 큰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란다.” 목자가 대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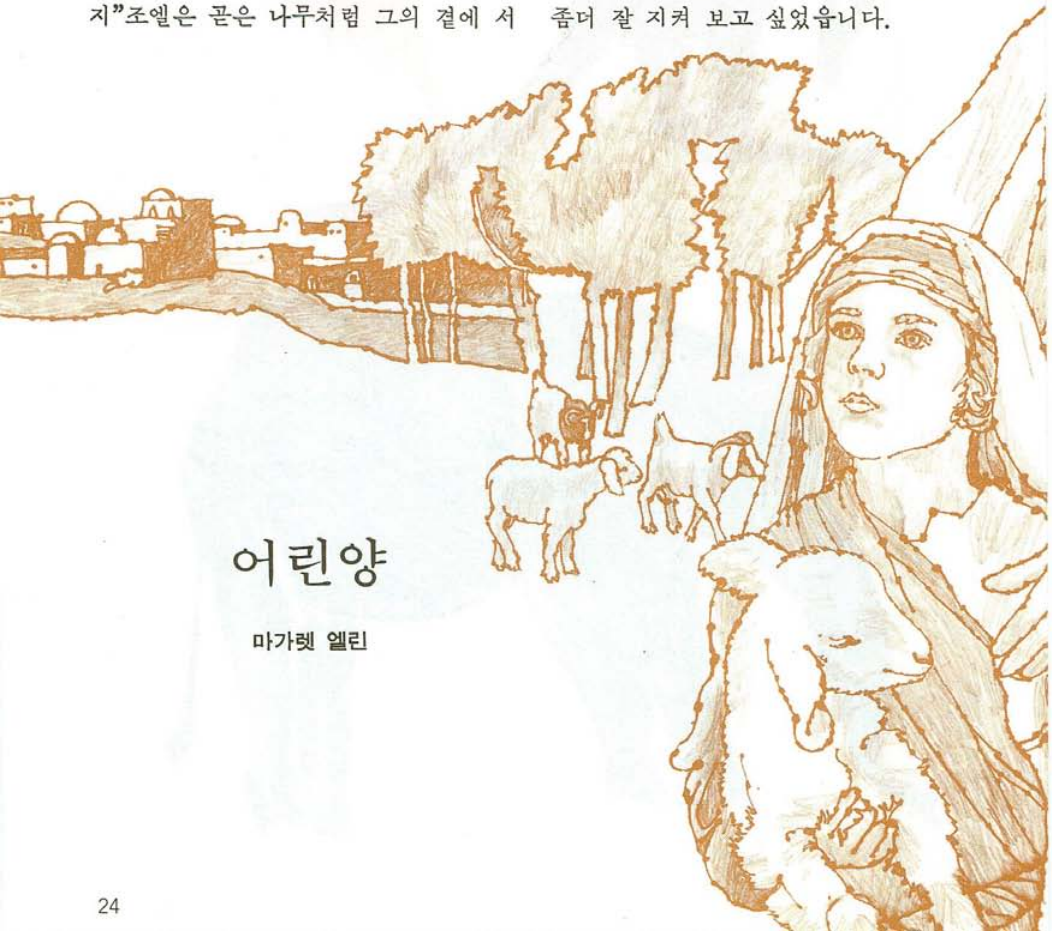
“하늘이 밝으면 항상 밝지만, 오늘 밤은 온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아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위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놀라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표현력이 부족한 아버지는 “정말 그렇구나, 애야”하고만 말했습니다.

양을 가까이 끌어 안고 의투로 몸을 두르고는 소년은 누워서 하늘의 영광을 좀더 잘 지켜 보고 싶었습니다.

어린양

마가렛 엘린



다른 많은 목동들처럼 조엘도 별에 대하여 이상스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누군가 선택된 사람이 하늘의 창문을 연구함으로써 이 지상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배우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매일 밤 눈에 익은 별들을 찾아보고 또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외었습니다.

조엘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별을 가려 내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떠 있는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는 이 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별은 악한 것을 쳐부수는 힘센 것을 갖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백성을 압박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귀한 임금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엘을 그 사랑스러운 임금님께 주님으로서 생명이 라도 받쳐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년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조엘은 눈을 떴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아니라 흥분된 소리였습니다.

“갑시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서 서두릅시다.”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모닥불을 흙으로 묻고 외투 자락으로 몸을 감고는 허수아비를 세워 양을 지키게 한 후 떠났습니다.

위를 쳐다보다 조엘은 한 밤을 가로지르는 별 빛으로 거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크게 뜬 조엘은 벌떡 일어났음



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이런 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예요?” 소년은 어린 양을 끌어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고는 긴장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엘 결국 표적이 왔구나!”

아버지와 소년은 빛을 따라 다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여관에 닿았을 때 마당은 어두웠고 매낮의 법석은 고요해진 후였습니다. 낙타도 벽에 기대어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굿간만 이상스럽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조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 불로 탄 마구간 재목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인가? 소년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쉽게 타는 지푸라기가 타는 불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낮의 태양처럼 하늘로부터 비쳐 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땅이 거룩한 땅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구간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자들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한 것처럼 그는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였습니다.

이 아기가 백성의 구세주이시요 임금 이실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요. 그것은 비천한 목자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아직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조엘은 이곳에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의 가슴은 이 놀라움에 크게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울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의 마음을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엘은 양을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 품에서 나오면 양이 추워할 텐데요.”

“진조 침대는 따뜻할 게다. 애야”

“하지만 내가 어린 양을 두고 떠나면 양이 울거야.”

“비둘기가 자장가로 잠재워 줄게다.”

“하지만 쓸쓸해 할거야.”

“아기도 양을 사랑한단다. 애야.”

조엘은 양을 꼭 끌어안고 구유로 가서 아기 앞에 양을 내려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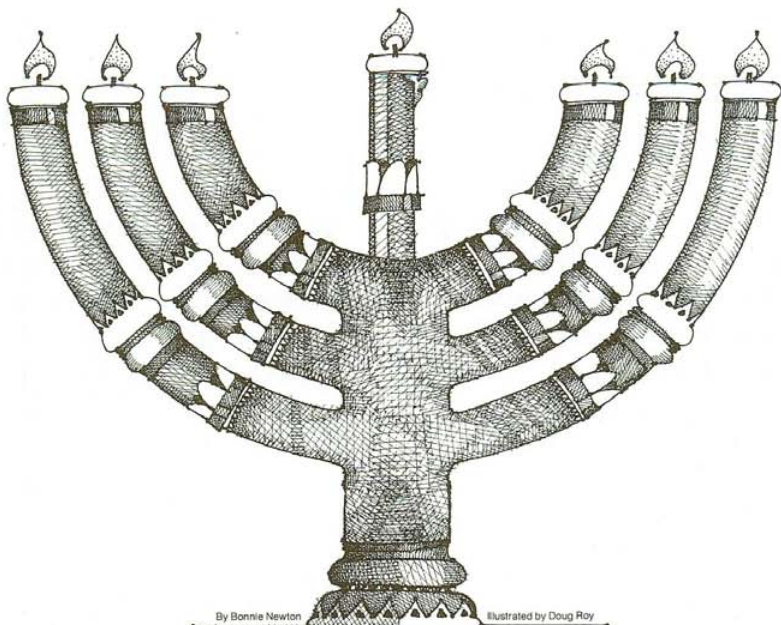
어머니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엘은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바라다 보는 조엘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아기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에게도 항상 세상의 소망이 되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조엘을 마구간에서 데리고 나와 잠든 낙타를 지나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아버지의 손은 따스하고 친절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직도 누추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소년은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음악 소리였을까요? 하늘 합창대의 합창 소리였을까요? 별들이 함께 노래한 소리였을까요? 조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엘은 그의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어떤 새로운 음악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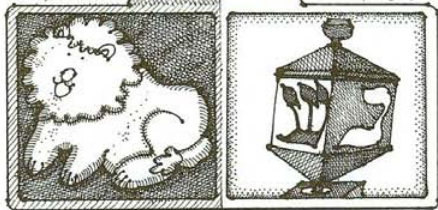
즐거운 하누카

보니 뉴튼



By Bonnie Newton

Illustrated by Doug Roy



기독교인들이 서로서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라는 인사를 나누고 싶어하는 절기에, 온 세계의 유대인들은 친구들에게 즐거운 하누카(광명절 또는 현납절)!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절기에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고 연극과 경연 대회를 벌입니다. 유대인

들은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8일 동안의 하누카 절기 동안 매일 저녁 유대인들의 가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족이 모두 아름다운 가지 모양의 촛대를 가운데 놓고 둘러

앉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밤에는 여덟 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에 단 하나에만 촛불이 켜집니다. 다음 날 밤에는 두번째 촛불이 켜지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촛불이 켜져서 여덟 개의 촛불이 모두 켜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른 초에 불을 붙이게 해준 아홉번째 촛불을 가리켜 샴쉬라고 합니다.

촛불이 타오르면 사람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놀이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신 크립을 얹은 릿케스(감자 껌케이크)와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자 모양의 과자도 먹습니다.

하누카는 유대 역사에서 어려운 때가 지난 다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헌납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전 168년에 그리이스—시리아 왕인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는 팔레스타인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성전을 장악하여 이교도의 신으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에게 강제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가 세운 우상을 섬기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버리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장로인 마타티아스는 독재를 거부하면서 유대인 반란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마타티아스를 따라 유대 언덕으로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마타티아스의 다섯 아들 중 하나인 유다 마카비가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유다는 “망치장이”라는 뜻의 바카비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그가 자유를 위하여 휘두르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유대인들은 안디오커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이끈 군대의 수나 장비는 안디오커스의 군대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리이스—시리아 군대를 여러 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유대인은 곧 모든 이교도의 우상이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헌납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재단 앞에서 영원한 불이 타오르도록 점화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저녁을 밝힐 수 있는 기름만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램프에 불이 켜졌으며, 그불은 기적적으로 새로운 기름이 마련될 때까지 8일 동안 타올랐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동안 사람들은 이를 경축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축하하는 이 하누카 절기에 유대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시 다짐합니다. 이 즐겁고 선물을 나누는 절기에 유대인들은 드레이들이라는 민속 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손으로 돌리는 면의 뚜껑이 있는 것입니다. 각 면에는 다음 말을 나타내는 4개의 히브리 문자가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나제 고통자 호야 샴(이곳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손으로 돌리다가 멈추었을 때 어떤 면이 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는 놀이입니다.

유대인이 왜 그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왜 즐겁게 촛불을 켜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



시온을 찾아서

1830-1835

글렌 엘 레오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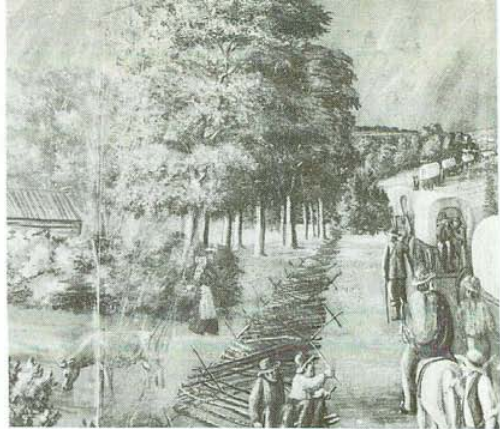


1830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1860년대를 물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로 만들어 주었다. 서부 뉴욕주 페이테에서 조그마하게 시작된 교회는 급속도의 발전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자 하는 열의에 찬 개종자들은 이 회복된 복음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기꺼이 말해 주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첫째 장로”로 지지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섰으며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신전을 건축하는 것도 도왔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에서 뜨인 돌이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크기와 속도가 증가되어 범세계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물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는 중요한 사건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초기 말일성도들을 흥분시켰다. 성경과 물몬경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새로운 계시와 함께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모든 나라로부터 모이는 마지막 날에 선교사업의 중요한 시기를 가리킨다. 복천년을 위한 예비 사업의 일부로서 성도들은 복음이 이스라엘 지파의 잔류민들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을 보았다.

1830년 10월,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위트머 이세, 팔리 피 프랫 그리고 지바 피더슨은 미국 서부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뉴욕을 떠났다. 그들은 뉴욕주 버팔로우 근처의 카다로그스족과 오하이오주의 와이안도르족을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 서부로 이동하는 몰몬 성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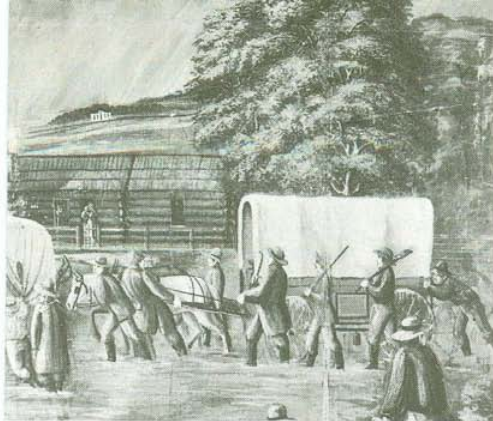


방문하였다. 개척민들은 서부로 미주우리주까지 밀고 들어 갔다. 그 주를 넘으면 서부로 이주하는 개척자들에 의하여 대치된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올리버 카우드리와 그의 동료들이 미주우리 개척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실망을 직면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선위 인디안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벨라웨어 국의 추장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 인디안들의 호의적인 환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파견된 인디안 보호 요원은 그들이 평화를 교란시켰다면서 인디안 보호 지역으로부터 떠나기를 명하였다. 이 초기 레이벤인과의 몰몬의 접촉은 선교사들이 기대하였던 개종(개심)을 가져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탐험의 결과로 교회는 미주우리로 눈을 돌렸으며, 그곳에서 성도들은 시온성을 건립하려 하였다.

선교사들은 오하이오에서 상당한 수확을 거두었다. 서부로 가는 길에 그들은 전 캠프교의 전도자요 팔리 피 프렛의 친구였던 시드니 리그돈을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리그돈은 의심을 품었으나 몰몬경을 연구하였으며 그후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그 자신도 곧 칠펜을 받기를 원하였다. 그 지역에서 약 130여명이

칠펜을 받았다. 리그돈은 예언자를 만났을 때까지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2월에 리그돈은 젊은 모자 제조업자, 에드워드 패트리지와 함께 요셉 스미스를 만나기 위하여 뉴욕주 워터루에 있는 스미스의 집으로 갔다. 예언자는 리그돈의 능력에 감동을 받았으며, 곧 주님께서 “더욱 큰 일을 시키려고” 그를 준비시켰다는 계시를 받았다. 과거의 전도자는 곧 그의 웅변술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성경 영감역의 서기로 요셉 스미스를 돕기 시작하였으며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하였다.

뉴욕 주의 교회 회원에게 있어서 급선무는 집합 장소였다. 이에 대하여 계시는 두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들 중 하나가 서부 미주우리주, 잭슨군에 있는 인디펜던스 근처였다. 1831년 여름, 예언자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뉴욕주 콜스빌에서부터 서부로 이주해 오는 성도들의 정착지로 선정하였다. 그들은 인디펜던스를 포함한 이 지역을 시온 본부라고 불렀다. 이는 계시가 이곳을 미래의 새 예루살렘의 중심지라고 지적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요셉 스미스는 시온에 신전을 위한 모퉁이 돌을 놓고, 성도들의



물질적인 문제를 돌보는 감독으로 에드워드 패트리지를 성임하였다. 그는 최초의 교회 감독이 되었다.

그녀는 동안 북부 오하이오에서는 다른 뉴욕주 개종자들이 커틀랜드를 중심으로 제2의 물몬 집합지를 이루었다. 그곳은 그들이 새로운 오하이오주 개종자들과 합세하여 시온의 이주단을 기다리는 임시 대기소였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가족을 오하이오주로 이동시켰으며, 그때부터 1838년까지 커틀랜드는 교회의 본부가 되었다.

계시와 번역

물몬 역사상에서 커틀랜드 기간은 교회 회원에게는 놀라운 종교 체험을 안겨다준 기간이었다.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음을 간증하였으며, 새로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고, 교회 행정상의 눈부신 발전을 목격하였다.

오하이오주 초기 개종자 중에는 록에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하이오주 하이람 근처의 넓은 농장을 갖고 있었던 그의 부모, 존 존슨 가족은 커틀랜드에 있는 예언자를 방문하였다. 존슨 부인은 5년 동안 만성 류마치즘을

앓아 팔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방문 중에 예언자는 존슨 부인을 안수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되라.”고 외쳤다. 존슨 부인의 병은 깨끗이 나왔다. 이 일은 신력 능력에 대한 산 증거로 길이 남게 되었다. 이 기적에 이어 말일성도 간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과거의 케이커들이 그들의 과거 종교 집단에서 실행하였던 “영적인 작용”이라 하는 참된 은사를 모방하려 시도하다 예언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이 모방자들은 교회를 위한 계시를 주장하려 하였다. 다른 사람들 중에 허블 부인이라는 사람은 요하이오의 성도들을 인도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훼방자들을 대항하여 예언자는 계시로써 주님은 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단 한 사람만을 임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현대의 계시가 성도들의 개인 생활을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교회의 절차를 가르치고 교회를 설명하였다.

1830년대에 예언자는 잃어버린 경전을 회복함으로써 교리상의 이해를 넓혔다. 그들 중 두 가지가 예녹의 예언과 모세의 시현과 기록이다. 이것은 후에 값진 진주로 모여졌다. 1830년 여름, 그는 구약과 신약을 개역하기 시작하였다. 예언자는 초기의 오역된 귀절을 고치는 작업을 하느라고 이년 동안 노력했다. 이 기간 동안 요셉 스미스는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들 중에는 영광의 등급(교성 76편), 전쟁에 관한 예언(교성 87편), 지혜의 말씀(교성 89편), 신권에 대한 지시 사항(교성 84편) 및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진리(교성 93편)

등에 관한 시현이 있다.

처음부터 성도들은 예언자의 번역과 계시를 구하였다. 1830년 초에 예언자는 계시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착수하였다. 예언자는 계명의 책을 만들기 위하여 모은 계시를 정리하고 1831년 11월에는 계시된 머리말과 부록을 덧붙였다. 새로운 경전의 인쇄가 약 3분지 2가 완성되었을 때 1833년 7월, 폭도들이 인디펜던스에서 교회 출판소를 파괴시켰다. 약간의 불완전한 인쇄지들이 성도들에 의하여 보존되었지만 이 책이 다시 편집되기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더 걸렸다. 예언자는 편집 범위를 넓혀 “신앙 강화”라는 몇 가지의 교리 강화를 포함시켰으며, 계시는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새로운 경전은 1835년 가을에 교리와 성약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예언자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받은 계시가 발표되기를 고대한 반면, 많은 이웃들은 현대의 계시라는 말에 조소를 보였다. 오하이오주의 신문들은 물몬의 교리를 비웃었으며 성직자들도 합세하여 이것을 비난하였다.

때때로 반대자들은 폭력까지 행사했다.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32년 3월 24일 밤, 요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오하이오주 하이람의 존 존슨의 집에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밤 20여 명의 폭도들이 예언자와 시드니 리그돈을 끌어 내어 근처 밭까지 질질 끌고 나왔다. 그들은 손톱으로 예언자를 난폭하게 할퀴고 그의 입에 염산을 부어 넣으려 했으며, 그의 벗은 몸에 칼타를 칠하고 새의 깃을 꽂았다. 리그돈 장로는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일주일 후 예언자가 미주우리주를 두번째 방문

하기 위하여 떠날 때 그의 적이 다시 그를 추적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는 기선에 올라타 몸을 피하여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그는 끊임 없이 폭도와 학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경호원을 두고 다녀야 했다.

이러한 역경은 회복의 좋은 소식을 출판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미주우리주와 오하이오주에 있는 교회 출판사에서는 예언자의 아내 엠마가 편집한 찬송가를 출판했고, 경전의 새로운 판이 나왔으며, 최초의 교회 신문인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가 나오게 되었다. 선교 사업은 1830년대 초반 기동한 더욱 확장되었다. 농한기에는 장군들이 근처 마을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곤 하였다. 좀더 선교 지역을 넓힌 사람들은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북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인디안들에게 말씀하는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왕국의 조직

1830년대의 계시와 설교의 중심 주제도 집합된 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복천년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것이었다. 이 왕국, 곧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미주우리주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뉴웰케이 휘드니 감독이 오하이오에서 봉사하였다. 이들 감독에게는 관한 지역이 배당되었다. 그들은 발전하는 교회들 다스리도록 1830년대에 임명된 새로운 신권 역원들이었다.

1831년이 되기 전까지 교회의 신권 관리 조직은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의 “첫째” 및 “둘째” 장로의 관리로 인도되었다. 다음 4년 동안 요셉 스미스는 몇몇 새로운 신권 직분과 정원회를 도입하였다. 1831년 6월 3일, 커틀랜드에서 열린 특별 대회에서 특별한 중요 목적으로 최초의 대제사가 성임되었고 관리 직분에 임명되었다.

관리 조직은 커틀랜드 시기 이래로 구같은 양식을 따랐다. 1832년 1월 25일에 요셉 스미스는 대신권 회장으로 지지되었고 6주 이내에 보좌로 시드니 리그돈과 계시 거즈가 임명되어 완전한 대관장단이 조직되었다. 거즈는 채 일년도 못되어 불평을 품게 되어 그 자리는 프레테릭 지 윌리엄즈로 대체되었다. 대관장단은 온 교회를 관리하였고, 1834년 2월 17일에 조직된 고등 평의회의 협조를 얻어 커틀랜드 스테이크의 부장단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7월에 미주우리주 클레이군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회가 조직되었다. 이것이 스테이크가 교회의 행정적 단위가 된 것으로는 최초였다.

계시에 의하여 주어질 또 하나의 직분은 축복사의 직분이었다. 요셉 스미스 일세는 1833년 12월 18일에 임명을 받았다. 1835년 2월에 두 개의 일반 정원회가 첨가되었는데,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정원회가 그것이었다.

물몬경의 세 목격자들이 24세부터 35세까지의 헌신적인 젊은이를 택하여 최초의 사도를 선정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들 모두가 끝까지 교회에 충실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 중에는 후에 요셉 스미스의 후계자로서 교회 대관장이 된 브리감 영도 있었다. 그들의 성임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 스미스는 그들을 연령에 따라 선임 순위를 정하였다. 이때 새로 조직된 사도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토마스 비 마쉬,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 브리감 영, 히버 시 킴볼, 올슨 하이드, 윌리엄 이 맥테른, 팔리 피 프랫, 루에스 존슨; 윌리엄 비스미스, 올슨 프랫, 존 에프 보인튼, 그리고 라이만 이 존슨 등이다.

1835년 2월에 요셉 스미스는 최초의 칠십인을 부르고 각 정원회를 관장하도록 일곱 명의 회장을 두어 조직하였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들은 십이사도를 도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칠십인들을 이끌도록 되어 있었다. 1812년과 1835년에 받은 계시는 이 새로운 신권 직분에 대한 책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그것은 교리와 성약 제84편과 107편에 기록되어 있다.

잭슨 군으로부터의 추방

이와 같은 행정적인 발전이 커틀랜드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미주우리주의 성도들은 시온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 1833년 요셉 스미스는 시온성

과 신전들의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이 성은 4 헥타아르의 구역의 259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으며 두 구획에 각각 12개씩 24개의 신전이 건립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말일성도의 미주우리주 원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이러한 복천년의 수도에 대한 꿈은 미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의 비물론 개척자들은 물론 정주민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았다. 성도들은 급히 잭슨 군에 재산을 구입하였으며 곧 미주우리주 원주민의 수효보다 물론의 수가 많아졌다. 물론이 사업계나 정치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시온의 집합, 성별, 새로운 계시 등과 같은 물론의 종교적 가르침의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많은 말일성도 개종자들은 미국 북동부에서 오는 반면, 많은 미주우리주 초기 주민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와 사회제도를 주장하였다.

미주우리주의 시민들은 특히 자유인이 된 흑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였으며, 그러한 흑인을 미주우리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제한하였다. 이 발표는 1833년 7월에 물론에 대하여 적대 행위가 일어났을 때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이 일이 있기 전 여러 달 동안 몇몇 영향력이 있는 미주우리 정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이웃을 추방시킬 방법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들은 반 물론 기사를 회람시켰고, 비물론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떠나야 한다고 외치는 과격적인 성도 몇몇을 비난하였다. 7월, 교회의 신문인 이브닝 앤 이 모닝 스타지는 자유인이 된 흑인의 이주에 대한 미주우리주의 금지법을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지역의 주민



들은 이것이 오히려 흑인 이주의 부채질을 한 격이라면서 그들의 노예 제도에 대한 위협이라고 풀이하였다. 신문사 편집자인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곧 이를 해명하는 기사를 내었지만 노한 시민들은 성도들을 근절시키려는 선언서, 또는 “비밀 결사”를 구성하고 있는 후였다.

미주우리주 주민들은 그달 말에 공회 회합을 갖고 그들의 최후 동침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그들은 말일성도 정주민들에게 토지와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그곳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자 이에 참지 못한 미주우리주 주민들은 인쇄소를 파괴하고 그 밖의 말일성도 사업체에 폭력을 가하였다. 그들은 에드워드 페트리지와 찰스 엘렌에게 광장에서 쫓겨나고 새것을 쫓는 추태를 당하였다. 3일 후 폭도는 교회 역원들에게 총구를 들이 대고는 다음 봄까지 모두 재산을 정리하여 그곳을 떠나겠다는 약조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잭슨 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미주우리 주지사 다니엘 던클렌씨에게 보호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주 관원들은 지역의 재판소에서 도움을 의뢰해 보라고 권고하여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몸에
타르를 바르고
깃털을 깨끗

행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가정과 재산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고 무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미주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행동을 몰몬이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10월 31일에 성도들에 대한 일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되었다. 약 50명의 남자들이 인디펜던스 서부 빅 블루강변에 약 30리 가량 떨어져 있는 정착지를 습격하였다. 그들은 가옥을 파괴하고 여러 사람에게 매질을 했다. 한 주일 이내로 몰몬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그들에 대한 위협을 피하였다. 11월 4일, 빅 블루 강가에서의 충돌로 양쪽에서 4명이 사망하였다.

미주우리의 부주지사이며 인디펜던스 주민인 윌버 더블류 보그스씨는 서로 대립되는 그룹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였다. 그는 성도들에서 열흘 내에 무기를 모아 그곳을 떠나도록 권고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 계획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학살은 계속되었다. 남녀 노소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급히 자기의 소지품을 꾸려서는 사방으로 피난처를 찾아 몸을 숨겼다. 가장 많은 수의 성도들이 미주우리 강을 북단하여 미주우리주 클레이튼 군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곳 중심 마을인 리버티의 주

민들은 이 피난민에게 일자리와 안식처와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이들 피난민들은 흠으로 아무렇게 만들어져 버려진 노에 오두막으로 들거나 천막을 쳤다. 봄이 되자 그들은 땅을 빌리고 일자리를 찾았다.

잭슨 군으로부터 급한 철수는 예언자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 집합지를 이룩하려는 계획을 좌절시키게 되었다. 그는 도망간 몰몬에게 합법적인 전쟁을 계속하여 그들의 재산과 손상을 보상받으라고 권고하였다. 성도들은 미주우리의 주지사에게 그들의 가옥을 다시 찾으려 하니 군 사상의 호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지사는 동의하였으나 잭슨 군 군대의 적개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법정에서 증인들의 소란은 결국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같은 노력을 포기하도록 했다. 지도자들은 미합중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에게도 탄원하였으나 워싱턴의 정부는 주의 권리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연방 관리들은 지방의 문제를 개입하기를 꺼려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미주우리주로 탄원서를 되돌려 보냈다.

이러한 탄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요셉 스미스는 시온의 땅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말일성도 자원군대를 조직하였다. 1834년 2월경 그는 커틀랜드 지역과 동부 미국으로부터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부대가 미주우리로 가는 4,000리 행진 중에 합병되었다. 시온캠프라고 불리워진 205명의 지원병들은 미주우리주의 군대와 협조하며, 쫓겨난 몰몬들이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호위해 주겠다는 주지사 던클린의 약속을 수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주지사

는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였다. 그는 말 일성도들에게 협조하다가 미주우리주민들의 비위를 거슬려 소동이라도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다. 오히려 주지사는 성도들에게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었다.

양쪽 대표가 1834년 6월 16일에 리버티 재판소에서 만났다. 교회 대변인은 옛 정착지를 돈을 주고 사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 성도들도 그들의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끝났다. 며칠 후, 시온캠프가 마지막으로 미주우리 재산 군 맞은 편 피싱 강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요셉 스미스는 땅을 다시 차지하려는 계획을 연기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한 주 후에 예언자는 지원병들을 해산시켰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작은 부대로 돌아 갔고 나머지는 미주우리에 남아있었다.

미주우리의 성도들은 미주우리, 클레이군에 이년 동안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초기 주민들이 그들의 영구 정착을 반대하기 시작하자 주 관리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줄 것을 도왔다. 이번에는 성도들은 북부 지역에서 간신히 약간의 정착지를 얻게 되었다.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인들의 공동 협력으로 미주우리주에 두개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었다. 새로운 칸드웰군에 있는 솔 크리크를 따라 성도들은 파웨스트를 건설하였다. 이곳은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서부의 집합 장소가 되었으며 2년 이내에 거의 교회 회원 5,000명이 그곳에 살게 되었다. 파웨스트에는 상점, 대장간, 호텔, 인쇄소 및 학교까지 있었다. 칼드웰 군과 두번째로 새로 건립된 데이비스 군 이의 지역에

성도들은 여러 개의 작은 지역 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러한 지역 사회 중 하나가 1838년 봄에 이룩된 아담 온다이 아만이었다. 신전 부지가 파웨스트와 아담 온다이 아만에서 각각 선정되었으나 폭도들의 폭행과 미주우리주로부터의 성도들의 추방으로 인하여 이 두 신전은 모두 건축되지 못하였다.

미주우리주에서 재정착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에 따른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오하이오주의 성도들이 커틀랜드에 말일성도 본부를 두고 신전을 완성시켜야 하는 일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배도와 커틀랜드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1830년 중반에 성도들의 마음은 해이해졌다. 결국 성도들은 커틀랜드는 북부 미주우리주의 정착지와 함께 포기하고 일리노이주, 나부로 피난처를 찾게 되었다. *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되라”

시온 진영

로날드 더블류 워커

1834년, 200명의 남자들이 왕복 8천리의 길을 행군한 소위 시온 진영의 행군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브리감 영은 3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백이십리 내지 백오십리를 걸어 오하이오주로부터 미주우리주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오면서 겪은 고통을 기억하였다. 진흙 수렁에 빠진 낡은 포장 마차를 끌어 내야 했고, 때로는 이삼십 명이 함께 마차를 언덕 위로 끌어 올려야 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했다. “밤이 되어도 열한 시나 열두 시 전에 자리에 누워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영 장로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아침에는 매일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영의 기상 나팔은 새벽 3시 내지 4시 사이에 불었다. (설교집, 4: 101-102)

이것은 사람의 인내심을 기르고 또 시험하는 시기였다. 언젠가 요셉 스미스는 먹기 위해서가 아닌 이상 어떠한 동물도 죽이지 말라고 권고한 적이 있었다. “인간이 악한 성품을 잃고 동물을 멸족시키기를 그칠 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교회정사 2: 71-72)

브리감 영은 예언자 요셉의 말을 듣고 배웠다. 한번은 영 장로가 잠을 자기 위해서 그의 담요를 두터운 풀 위에 펼쳐 놓았는데 방울 뱀 한 마리가 몸을 들고 앉아서 위협하였다. 브리감은 근처에 있는 친구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이 뱀을 가져다가 멀리 버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게 그리고 오늘밤에 우리 진영으로 다른 뱀들이라도 오지 않게 하라고 말하게, 만일 오면 누군가가 죽일지도 모르니까” 친구는 충성스럽게 뱀을 잡아 진영으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갔다 버렸으나 조금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 (설교집, 17: 40)

브리감 영의 선천적인 능력은 그를 진영 대장의 한 사람으로 선택되게 했다. 그는 틈틈이 복음을 가르쳤고 때때로 식량을 조달하도록 위임받기도 하였다. 그는 항상 요셉 스미스의 지도력을 주의깊게 관찰하였으며 그로부터 경험을 얻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조금도 불평 없이 요셉 스미스의 지도력에 순복한 것은 아니었다. 행군의 어려움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안정되지 못하고 정신력이 약한 자들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라고 브리감 영은 회상하여 말하였다. (설교집, 10: 20)

시온의 진영이 미주우리주 성도들을 돕지 못하게 되자 의견 충돌은 더욱 커졌다. 원래의 계획은 물론에게 잭슨 군의 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주의 군대를 모으고 시온의 진영은 성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되돌려 받은 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커틀랜드로부터 미주우리까지 행군하여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미주우리주 주지사는 주 군대를 소집하기를 거절하였다. 요셉 스미스는 미주우리주 주민에게 공격하는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다시 오하이오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커틀랜드로 돌아 오자 많은 사람들은 진영을 이끌고 서부로 간 것에 대하여 브리감 영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다면 일이 이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무슨 목적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나 브리감은 그가 얻은 값진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와 함께 여행함으로써 내가 얻은 지식의 잔이 넘치도록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설교집, 10: 20)

몇달 후 요셉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조직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1835년 2월 14일, 브리감 영은 십이사도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시온의 진영에서 그가 보인 근면성은 요셉과 주님에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에 관한 새로운 활동

계보과 관리 책임자, 조지 에이치 퍼지 형제와 엔사인지 기자와의 대담



1977년 8월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선교 사업이 중요한 것만큼 죽은 자를 위한 선교 사업 역시 중요하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에게 죽은 자를 위한 이 사업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크든 작든 가족 단위로 이 사업을 계속 행하도록 무조건 권고합니다. (엔사인, 1977년 10월호, 182페이지;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3페이지)

엔사인지 기자 : 6월 지역 모임에서 계보 프로그램이 다음 해부터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을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퍼지 형제 : 현재 실시되고 있는 4대 프로그램은 성도들에게 가족 기록서와 계보 통계 자료 기록에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4대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계보 및 신전 사업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많은 기록이 교회의 기록 동굴 보관소에 소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사람이 적어도 대 가족 기록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능력이 미치는 대로 더 많은 가족 기록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조사에는 많은 편지를 쓰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많은 시간과 돈이 소모되므로 비생산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자료를 얻기 위하여 친척들이 서로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 사람이 조사한 자료를 계보과에 보내면 때때로 서로 기록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확성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중 수고를 들이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엔사인지 기자 : 프로그램에서의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퍼지 형제 : 각 개인은 그의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와 만나 가족 기록서의 기재 사항을 비교하고 정확성을 확인한 다음 가족 중 한 사람이 최종 정확한 4대 가계도와 가족 기록서를 솔트레이크 시티의 계보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모체 또는 부

계의 친척(숙부, 숙모, 조부모)을 만나 그 가족과 과거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결과 제출된 자료에 변경을 요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각 가족은 교회 제보과 본부에 기록서상의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978년 12월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4대 프로그램은 끝나고 가족에 대한 4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1979년 7월부터 새로이 준비된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4대 이상으로 더 조사한 기록도 받습니다마는 이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방대한 기록 수집 및 초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진 사업을 집행할 사람의 성명을 준비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엔사인 기자: 기록 수집 및 초출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입니까?

퍼지 형제: 우리는 세계 35개국에 기록을 필름에 찍는 카메라 95대를 갖고 있으며, 해마다 4천만 내지 5천만 페이지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록을 분류하고 목록을 만듭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집된 기록으로부터 “초출”되고, 분류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신전으로 보내져서 의식이 집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스테이크에서 기록 초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현재로 보아 한 명의 카메라 기사에 대략 900명의 기록 초출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동되고 있는 카메라가 95대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라면 현재 필름에 찍고 있는 기록과 이미 필름에 찍은 기록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는 상당히 많은 기록 초출자들이 필요합니다.

엔사인 기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보 사업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것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의 책임은 나의 조상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권고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퍼지 형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중요시되고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주님은 총관리 직원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아담과 이브라는 같은 부모로부터 나온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계도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또한 다른 많은 민족의 직계조상이기도 합니다.

교회 회원이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두 서로서로 상대방의 가족을 찾아보는 상호 협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심어질 것입니다. 스테이크가 다르고 대륙이 다르더라도 공통되는 결과는 우리가 지상의 친족과 영적인 친족을 구원하는 효율적인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접합적으로, 그리고 “또 말일성도로서” 개별적으로 일함으로써 이 사업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성 128 : 24)

다시 말하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선교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죽은 자에 대한 선교 사업에서

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영국에서 봉사하도록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서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가르치려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많은 사람을 외면하고 오직 한 사람만을 찾도록 선교사를 대도시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계보 탐구에서 취해왔던 접근 방법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구를 주셨으며, 총관리 역원은 지금은 죽은자를 위한 선교 사업에 주력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보 사업과 선교 사업은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 같은 원리와 절차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엔사인 기자 : 기록 추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스테이크에 살고 있는 회원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퍼지 형제 : 우리가 35개국에서 기록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기록이 다수입니다. 함부르크의 스테이크는 독일어 기록을 추출할 것이고 멕시코의 스테이크는 스페인어 기록을 추출할 것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파악되면 스테이크 부장은 그들을 불러 스테이크 계보 선교사로 성별합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그의 스테이크에 몇 명의 스테이크 계보 선교사가 필요하며, 각 선교사는 한 주간에 몇 시간 동안 작업해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오래된 필적을 해독하는 것을 훈련받아 필름에 찍은 기록에서부터 명명, 칩제,

결혼, 사망 등등에 관한 자료를 추출해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각 자료를 추출합니다. 결과물 컴퓨터에 넣으면 컴퓨터는 자료를 비교합니다.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나타나면 키보드가 잠기고 제2 타이피스트 즉 확인을 해주는 타이피스트가 즉시 평가하여 올바른 자료가 담겨 있는 추출 기록이 무엇인가를 가려 줍니다. 그리하여 보다 정확한 기록을 얻게 됩니다.

엔사인 기자 : 어떠한 회원이라도 한 달에 몇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기록 추출 작업을 도울 수 있습니까?

퍼지 형제 : 훈련이 문제지요. 우리가 한 사람을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오래된 필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유능하게 되기까지는 여러 주일이 걸립니다.

엔사인 기자 : 그러나 추출자로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대 기록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이상의 계보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퍼지 형제 :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 회원에게 공동 묘지의 묘비를 모두 베끼고 관계 관공서에 있는 오래된 자료들 기록하여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하여 모든 중요한 계보 기록이 수집된 색인이 처리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 지역에 선조가 있었던 사람은 즉시 그 기록을 찾아서 자신의 4대 가족 기록서를 편집하거나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 색인도 회원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봉사입니다. 필름 한 통 한통씩을 모두 찾는 것보다는 색인

을 찾아 필요한 필름을 찾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회원이 하여야 할 가장 주된 활동은 기록으로부터 초출된 성명을 가진 자를 위한 신전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1977년 6월에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 있는 두 개의 스테이크의 협조를 얻어 우리는 기록 초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0명이 채 안되는 초출자로 이 두 스테이크는 현재 세인트 조지 신전에서 신전 활동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성명을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신전 지역내에서 그 신전을 위한 성명을 제출하게 하라는 킴볼 대관장님의 소망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현재의 실정이 보다 확장된 신전 활동, 확장된 신전의 수,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확장된 선교 사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전 사업을 위한 성명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을 초출할 방대한 수의 마이크로필름을 갖고 있으며 매일 보다 많은 기록이 필름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평균 한 사람이 한 시간에 20개의 성명을 초출할 수 있습니다. 저 많은 계보 선교사가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신전 사업을 위한 성명 목록을 완전하게 작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신전 지역에서는 보다 빠른 속도로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는 회원에게 신전을 보다 자주 방문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곧 신전에서 더 많은 모임이 열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전이 열리게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자주 신전을 참석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신전이 하루 24시간 동안 내내 열려

구세주께서는
그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요 17 : 22)

있게 되고 신전이 온 땅을 누리게 되리라고 킴볼 대관장님께서 시현으로 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기록 수집과 초출은 활동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태가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전 건립과 신전 참석에 더 많이 강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회원이 자기만의 노력에 의존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힘과 예지와 재능을 힘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엔사인 기자 : 일단 초출된 성명에 대하여 신전 사업을 보다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일이 행하여질까요?

퍼지 혈제 : 과거 계보과에서 돌보았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신전 지역에 있는 신전 서어비스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예로써, 현재 신전 서어비스 센터가 브라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브라질 성도들은 더 이상 가족 기록서와 기재 양식을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내고 다시 브라

질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신전 의식이 마쳐지면 솔트레이크시티로 자료를 우송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성도들은 이제 브라질 내에서 기록을 분류하며 확인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신전 사업을 행하여, 브라질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전은 솔트레이크시티로 완수된 의식에 대한 기록 사본을 보내어 기록 보관소에 안전히 보관되도록 합니다.

마이크로필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 세계 각처로부터 기록을 필름에 찍고 분류하며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기록을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신전 지역에서 사업을 완수한 후, 네가티브 필름만을 솔트레이크시티 제보자로 보냅니다.

엔사인 기자 : 이 신전 서어비스 센터는 언제 세워질까요?

퍼지 형제 : 필요하면 곧 세워질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브라질의 상파울루, 일본의 동경 등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는 계획의 전모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권능과 기록과 호출 및 분류 및 확인 기구와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에 조그마한 컴퓨터를 설치함으로써 신전 사업 기록은 곧 급속히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컴퓨터 체제로 자동적으로 성명이 나오고 기록이 제때에 맞추어 기재될 것입니다. 신전 추천서에는 성명과 단위 조직 번호(와드 및 스테이크)가 기입된 자력 스트립이 붙어 있게 됩니다. 신전 추천서를 컴퓨터에 넣으면 곧 여러분이 대리로 의식을 집행할 사람의 성명이 인쇄되어 나오게 됩니다.

신전 기록서에 여러분의 성명, 단위

조직 번호 그리고 날짜를 기입하시고 와드 신권 지도자를 위한 현재의 통계 기록을 제공해 주십시오.

엔사인 기자 : 4대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도록 회원을 돕는 새로운 자료가 여전히 있습니까?

퍼지 형제 :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일학교 12주 계보 학습 과정을 소개하여 4대 프로그램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컴퓨터화된 가계도 철입니다. 회원이 1979년 7월부터 자신의 정확한 가계도 1부를 제출하면 우리는 받은 모든 가계 자료를 대형 컴퓨터 철에 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제보반을 이수하여 자신의 4대 가족 기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첫번째 일은 교회 컴퓨터식 가계도 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계도 1부를 제출함으로써 컴퓨터는 그의 가계도가 이미 우리 철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주면 컴퓨터는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까지 알려 줍니다.

우리는 또한 컴퓨터식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목록은 우리 도서실에 있는 자료 뿐만 아니라 우리 도서실에는 없고 필름에 담을 계획도 없는 것일지라도 전세계에 있는 모든 계보 기록을 모두 수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경우, 목록은 그에게 즉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료가 없을 경우, 목록은 원래의 자료의 근거를 지적해 줄 것입니다. 다행히 이 목록을 마이크로피치에 담거나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집회소 도서실에 자주

값싸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엔사인 기자 : 참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퍼지 형제 : 나의 자녀와 나의 여동생과 조카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모두 함께 모여 우리의 가계도와 가족 기록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1979년 7월이 되면, 그 기록을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4대 이상 내 가 갖고 있는 모든 가계 자료도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나의 결혼한 자녀에게 그들의 가족과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개인 역사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을 해 두면 나의 증손이나 고손들이 정확한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사인 기자 : 왜 교회가 일지와 개인 및 가족 역사 기록을 작성하도록 강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퍼지 형제 :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작성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그의 혈통을 앎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개인의 기록은 우리들 조상에게 더욱 가깝게 가게 해주고, 조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다 쉽게 조상에게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난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가족이 더욱 강하게 융화되며, 그들을 위한 복음 의식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엔사인 기자 : “우리의 유산을 지킨”이라는 주제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서 열릴 것으로 최근에 발표된 1980년도 세계 제보 대회의 주요 목적이 이것입니까?

퍼지 형제 :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및 가족 역사 기록을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족과 개인과 공동 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 대회의 중요 목적 중 한 가지는 컴퓨터 체제의 가계도 철 방식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들도 그들의 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중요한 철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면서 기뻐를 절고 있습니다.

엔사인 기자 :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형제님이 느끼시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퍼지 형제 : 우리는 참으로 특권을 누리는 예언자들은 아마 오늘날 살게 되었으면 하고 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시대이며, 그 노력이란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셋세마베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드리셨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요 17 : 22) 우리는 아담의 가족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려 한다면 수고하는 데에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업을 주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는 것일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성탄절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다른 어느 때보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해 보고 말로나 행동으로 그들이 즐거워 하도록 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참다운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것은 참다운 성탄절의 정신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심오한 철학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탄절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천군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라고 외쳤던 외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중에 평화로다!”

이 얼마나 단순한 말입니까! 그의 미는 얼마나 깊고 이해하기 쉽습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띠고 지상에 오신 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1)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2)지상에 평화를 약속 합니다. (3)모든 만인이 기뻐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를 입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지표가 위의 세 가지 영광스러운 이

상이라면 이 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겠습니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순수하고 정의로우며 명예롭고 덕스러우며 참된 것, 즉 완전케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는 불결하고 수치스럽게 악한 것을 피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고 친절한 말과 사심없고 희생적인 행동으로 대하고자 할 때, 각 사람이 온 우주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미치게 될 큰 공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구세주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메시지가 오늘날의 인간에게 참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다는 욕망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강하게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진선미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비를 우리도 이웃에게 보임으로써 이 지상에 평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밀레니얼 스타 85 : 801-802(1923년)— *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최 동 현

해마다 12월이 되면 세계 도처에서 자기 자기 나라 나름대로 특색있게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4월 6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교성 20:1, 21:3)로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학자들도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겨울 한밤중에는 밖에서 양떼를 지키 수가 없으며(눅 2:8), 겨울철에 여행을 해야 되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눅 2:1~7) 원래 12월 25일은 북유럽 이교도들의 겨울 축제였습니다.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관련시킨 것은 「그레고리 교황」(주후 590-604) 때부터였습니다. 교황은 당시 북유럽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기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나 종교적인 관습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으며 선교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많은 이교도적 사상과 관습을 기독교에 도입케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나무로는 이교도가 사용하던 참나무 대신에 상록수를 사용했으며 이교도들이 태양신이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로 나무 장식용으로 쓰여졌던 초록빛, 금빛, 붉은 빛깔 등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가져왔던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온 세계가 지키는 성탄절은 이교도적 근원에서 나온 많은 세속적 관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차 회의를 4월 6일에 가까운 날에 갖도록 계획하여 이날에 교회의 창립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

생도 아울러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에 대해 12월 25일을 포함해서 일년 내내 생각해야 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언제 기념하느냐에 대해서 보다는 어떻게 기념하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께서 베푸신 자비와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하며 대속의 큰 은사에 대하여 가족과 함께 모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78년 10월 1일, 제148 반연차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님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씨울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전 15:19, 22, 54)의 성구를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생애는 100년 이상 살기가 드뭅니다. 그러나 내세는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구세주의 대속으로 우리가 부활 후에는 다시는 죽음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칠포의 물로 씻겼고 우리는 정결케 되었으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품시다.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5-16)라는 간증을 드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도 같은 간증을 얻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78년도 성도의 벗 색인

(7)

가렛 에이치 딘

질의 응답, 성도의 벗 4월호 9페이지

가르침

반에서의 창의력, 로로이 바니 성도의 벗 5월호 10페이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 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벗 4월호 37페이지

학습이란 씨앗과 같아서,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3월호 16페이지

가장

가장의 역할과 책임, 엘 톰 페리, 성도의 벗 2월호 93페이지

가장의 임무, 에이치 버크 피터슨, 성도의 벗 2월호 132페이지

다섯 개의 "수", 매리온 디 행스, 성도의 벗 2월호 52페이지

가정 복음 교육

키가 작은 벤 할아버지, 얼 스토우웰, 성도의 벗 5월호 13페이지

가정의 밤

참여, 우리 집 가정의 밤 성공의 열쇠, 글렌 더블류 하퍼, 성도의 벗 4월호 11페이지

가장의 임무

에이치 버크 피터슨, 성도의 벗 2월호 132페이지

가정 생산

가정 생산과 비축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문의되는 질문, 성도의 벗 5월호 43페이지

가정 생산과 비축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문의되는 질문

성도의 벗 5월호 43페이지

가장의 역할과 책임

엘 톰 페리, 성도의 벗 2월호 93페이지

가정은 안식처

엘리스 스트래튼, 성도의 벗 6월호 21페이지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155페이지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

오슨 스코트 카드, 성도의 벗 11월호 4페이지

가족

기도와 계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75페이지

교회의 기본 단위로 가정용 강화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69페이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가족의 관심사인 침례

엘리스 스트래튼, 성도의 벗 8월호 27페이지

간증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벗 2월호 105페이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일, 휴 더블류 피누크, 성도의 벗 2월호 104페이지

구세주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테릭 에이 커스버트, 성도의 벗 10월호 109페이지

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요시히코 기꾸찌, 성도의 벗 2월호 105페이지

간증회

현대의 기적, 게이 에이 패리, 성도의 벗 7월호 32페이지

간프리, 케네스 더블류

친절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 성도의 벗 12월호 10페이지

간증의 문을 열자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4월호 34페이지

감독

복지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121페이지

감사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벗 4월호 19페이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4월호 14페이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4월호 14페이지

개척자

시운을 찾아서 1830-1835, 글렌 엠 레오나드, 성도의 벗 12월호 29페이지 십대의 개척자, 고든 어빙, 성도의 벗 11월호 37페이지

개인 일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계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돈 시그밀러, 성도의 벗 12월호 21페이지

죽은 자를 위한 신진 사업에 관한 새로운 활동, 조지 에이치 퍼저, 성도의 벗 12월호 38페이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계시

헬러 더 테일러, 성도의 벗 10월호 57페이지
기도와 계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75페이지

계시, 헬러 더 테일러, 성도의 벗 10월호 57페이지

우리는 계시의 인도를 받았읍니다, 윌포드 우드럽, 성도의 벗 12월호 14페이지

진리가 무엇이나, 존 에이치 반덴버그, 성도의 벗 10월호 83페이지

결정

결정, 엘드리드 지 스미스, 성도의 벗 10월호 43페이지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도의 벗 2월호 12페이지

성공적인 결혼 생활, 오 레슬리 스톤, 성도의 벗 10월호 87페이지

결혼으로 하나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6월호 1페이지

질의 응답, 스티브 길리랜드, 성도의 벗 6월호 6페이지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십시오, 에프른 제이 데이, 성도의 벗 6월호 6페이지

결혼으로 하나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6월호 1페이지

결혼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십시오

에프른 제이 데이, 성도의 벗 6월호 6페이지

경건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3월호 1페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벗 2월호 77페이지

경고

비극의 주기,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23페이지

관심

우리는 늘 함께 있어 왔읍니다,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벗 2월호 34페이지

교육

브리감 영, 유진 잉글랜드, 성도의 벗 8월호 38페이지

교회 관리인의 곤경

로라 제이 어세이, 성도의 벗 3월호 11페이지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특별한 순간

그랜트 더블류 뱅거터, 성도의 벗 2월호 37페이지

교회의 기본 단위의 가정을 강화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69페이지

교회 역원 지지

질의 응답, 에이치 던 가렛, 성도의 벗 4월호 9페이지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0월호 26페이지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23페이지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윌포드 지 에드링, 성도의 벗 10월호 25페이지

교회의 활력소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7월호 40페이지

개종

그녀가 돌아 주었기 때문에, 헬렌 제이 세일리, 성도의 벗 4월호 6페이지

고마프, 애드니 와이

희생, 선교사의 모습, 성도의 벗 2월호 40페이지

관리인

아버지의 집, 교회 관리인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성도의 벗 3월호 14페이지

교회 관리인의 곤경

로라 제이 어세이 : 성도의 벗 3월호 11페이지

귀환 선교사

귀환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찰즈 에이 디메이, 성도의 벗 2월호 100페이지

귀환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찰즈 에이 디메이, 성도의 벗 2월호 100페이지
구세주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데릭 에이 커스버스, 성도의 벗 10월호 109페이지

구원

어린이의 구원,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3월호 3페이지

구원의 봉사

에이 디어더어 터틀, 성도의 벗 2월호 81페이지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벗 2월호 105페이지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대해 주었다

바라라 불, 성도의 벗 7월호 48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브렌다 헌트, 성도의 벗 3월호 32페이지
그리스도의 빛
 진리를 알찌니, 엔 엘돈 러너, 성도의 벗 10월호 18페이지
그리스도의 재림
 리그랜드 리차드, 성도의 벗 10월호 114페이지
그린, 존 에이
 꼭대기에, 성도의 벗 6월호 38페이지
그리피스, 토마스 제이
 불의 희생, 성도의 벗 11월호 8페이지
그는 간곡한 자에게 손을 펴며
 바라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2월호 135페이지
그녀가 돌아 주었기 때문에
 헬렌 제이 세일리, 성도의 벗 4월호 6페이지
그 아흠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벗 4월호 19페이지

금식
 금식—기쁨을 주는 은사, 세릴 콘티 캠프, 성도의 벗 7월호 37페이지

금식의 법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벗 2월호 125페이지

금식 헌금
 최고의 법,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149페이지

기도 ;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진 선교 기구
 딘 엘 라슨, 성도의 벗 5월호 4페이지

기도
 질의 응답, 로버트 에프 클라이드, 성도의 벗 11월호 18페이지

기도
 가정은 안식처, 앨리스 스트래튼, 성도의 벗 6월호 21페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벗 2월호 77페이지

기도와 계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75페이지
 신앙의 기도, 토마스 에스 문슨, 성도의 벗 10월호 28페이지
 기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진 선교 기구, 딘 엘 라슨, 성도의 벗 5월호 4페이지

기도와 계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75페이지

기적
 웨리 존슨, 성도의 벗 7월호 21페이지

기꾸찌, 요시히코
 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성도의 벗 2월호 106페이지

길리랜드, 스티브
 질의 응답, 성도의 벗 6월호 16페이지
 질의 응답, 성도의 벗 7월호 7페이지

길르앗의 유황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2월호 88페이지
꼭대기에
 존 에이 그린, 성도의 벗 6월호 38페이지

(L)

나는 하나님의 자녀
 로버트 디 헤일즈, 성도의 벗 11월호 21페이지
나부 여성 기념비
 성도의 벗 6월호 17페이지

나부터 복지 사업을
 에이 디어더어 터틀, 성도의 벗 10월호 135페이지

나 혼자서 이자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로널드 이 포울먼, 성도의 벗 10월호 46페이지

남편
 가장의 역할과 책임, 엘 톰 페리, 성도의 벗 2월호 93페이지

내 원대로 마음시고
 로버트 엘 심슨, 성도의 벗 10월호 54페이지

노년기에 대비할
 바라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10월호 132페이지

뉴튼, 보니
 즐거운 하누카!, 성도의 벗 12월호 27페이지

(C)

다른 종류의 옹기
 모린 엠스타인, 성도의 벗 6월호 26페이지

다이비스, 메리 에스
 좋은 이웃 클럽, 성도의 벗 8월호 24페이지
다섯개의 수

매리온 디.행스, 성도의 벗 2월호 52페이지
나이아, 윌리암 지
 영적인 기구, 성도의 벗 5월호 표3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벗 10월호 8페이지

다들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

의 벗 10월호 8페이지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성도의 벗 12월호 1페이지

더럽 콜 이세
성찬과 성약, 성도의 벗 7월호 15페이지

역성의 지침
의의 기초, 스펜서 더블류 콧볼, 성도의 벗 2월호 3페이지

역성
신권의 책임,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60페이지

던, 폴 에이치
우리는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성도의 벗 2월호 34페이지

데이, 에프튼 제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십시오, 성도의 벗 6월호 6페이지

데저렛 산업
사랑의 안식처,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벗 10월호 138페이지

델 마, 린
자매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한다면, 성도의 벗 6월호 11페이지

도덕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에즈라 바프트 벤슨, 성도의 벗 2월호 43페이지
청녀—참다운 수호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도의 벗 2월호 84페이지

도덕적인 타락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스펜서 더블류 콧볼, 성도의 벗 10월호 118페이지

도움
좋은 이웃 클럽, 메리 에스 다이버스, 성도의 벗 8월호 24페이지

독서물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강화함, 성도의 벗 10월호 69페이지
독신 기간, 부담인가 은사인가
앤 지 오스본, 성도의 벗 6월호 31페이지

독신 회원
독신 기간, 부담인가 은사인가, 앤 지 오스본, 성도의 벗 6월호 31페이지

동성애
의의 기초, 스펜서 더블류 콧볼, 성도의 벗 2월호 3페이지

동트니 날이 밝는다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10월호 15페이지

드 중, 델마
성경 퀴즈, 성도의 벗 6월호 24페이지

디데이, 찰스 에이
귀환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성도의 벗 2월호 100페이지

(ㄱ)

라슨, 딘 엘
기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진 선교기구, 성도의 벗 5월호 4페이지

러슨, 제이 머레이
질의 응답, 성도의 벗 5월호 7페이지

레비트, 멜빈
포로가 된 선교사, 성도의 벗 4월호 41페이지

레오나드, 글렌 엘
시온을 찾아서, 1830-1835, 성도의 벗 12월호 29페이지

로저스, 오레리아 스펜서
어린이의 벗, 성도의 벗 8월호 20페이지

롬니, 매리온 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도의 벗 11월호 2페이지
기도와 계시, 성도의 벗 10월호 75페이지
신권의 책임, 성도의 벗 10월호 60페이지
경건, 성도의 벗 3월호 1페이지
복지 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 성도의 벗 2월호 121페이지
최고의 법, 성도의 벗 10월호 149페이지
친절한 말들을 서로하세, 성도의 벗 5월호 1페이지

리, 조지 피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성도의 벗 10월호 27페이지

리, 해롤드 비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다, 성도의 벗 3월호 46페이지

리브, 렉스 시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임, 성도의 벗 10월호 113페이지

리차즈, 거트루드 엘
신전의 튼튼함, 성도의 벗 4월호 28페이지

리차즈, 리그랜드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벗 10월호 114페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일, 성도의 벗 2월호 30페이지

린쇼튼, 엘튼
코리의 확인, 성도의 벗 5월호 26페이지

(口)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123페이지

막대기

베더 루 벨, 우디와 나, 성도의 벗 4월호 20페이지

말일

그리스도의 제림,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10월호 114페이지

말일의 사마리아인

엘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138페이지

말일의 예언자가 쓴 고전

요셉 스미스, 성도의 벗 6월호 41페이지

매드슨, 캐롤

초등학교의 100년사, 성도의 벗 8월호 7페이지

매튜, 로버트 제이

실의 응답, 성도의 벗 7월호 7페이지

맥스웰, 닐 에이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 성도의 벗 4월호 37페이지

하나님의 딸, 성도의 벗 10월호 12페이지

맥콩키, 브르스 알

자유의지냐? 영감이냐? 성도의 벗 5월호 31페이지

동트니 날이 밝는다, 성도의 벗 10월호 15페이지

어린 아이의 구원, 성도의 벗 3월호 3페이지

신권의 열 가지 축복, 성도의 벗 2월호 48페이지

맥킨, 데오 이

간증의 문을 열자, 성도의 벗 4월호 34페이지

학습이란 씨앗과 같아서, 성도의 벗 3월호 16페이지

맹인

볼 수 있는 손가락, 성도의 벗 3월호 22페이지

메이슨, 제임즈 오

선교사인 예언자와의 여행, 성도의 벗 6월호 34페이지

멕케이, 데이비드 오

그리스도와 성탄절, 성도의 벗 12월호 표3

모린, 엠스타인

다른 종류의 용기, 성도의 벗 6월호 26페이지

모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엘 톰 페리, 성도의 벗 10월호 79페이지

모아나, 베틀

나부 여성 기념비, 성도의 벗 6월호 17페이지
목적을 갖고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월호 31페이지

몬슨, 토마스 에스

신앙의 기도, 성도의 벗 10월호 28페이지

주님의 방법, 성도의 벗 2월호 8페이지

물문경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벗 10월호 95페이지

엘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월호 1페이지

무엇보다 소중한 것

로버트 엘 백엔, 성도의 벗 10월호 111페이지

유추일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대해주었다, 바라라 볼, 성도의 벗 7월호 48페이지

미래를 위한 기초

나오미 엠 쉐메이, 성도의 벗 8월호 14페이지

믿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고든 비 힐클리, 성도의 벗 10월호 91페이지

존 테일러, 망명 길에서 보낸 편지, 성도의 벗 11월호 33페이지

주를 의지하라,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57페이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고든 비 힐클리, 성도의 벗 10월호 91페이지

밀즈, 페기

친척에게 복음을 전한 꼬마 선교사, 성도의 벗 5월호 28페이지

(卍)

바니, 로로이

반에서의 창의성, 성도의 벗 5월호 10페이지

바다

바다물이 왜 짭까요, 성도의 벗 5월호 21페이지

바다물이 왜 짭까요?

성도의 벗 5월호 21페이지

반덴버그, 존 에이치

진리가 무엇이나? 성도의 벗 10월호 83페이지

방문 교육

방문 교육의 목적, 성도의 벗 12월호 1페이지

방문 교육의 목적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2월호 1페이지

배도

동트니 날이 밝는다,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벗 10월호 15페이지

밴담, 마빈 알
질의 응답, 성도의 벗 11월호 19페이지

백먼, 로버트
무엇보다 소중한 것, 성도의 벗 10월호 111페이지

뱅거터, 더블류 그랜트
교회 역사에서의 특별한 순간, 성도의 벗 2월호 37페이지

벌 세계적인 교육
조 제이 크리스틴슨, 성도의 벗 8월호 44페이지

벤슨, 에즈라 태프트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성도의 벗 10월호 47페이지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성도의 벗 2월호 43페이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성도의 벗 4월호 14페이지
마지 않는다, 성도의 벗 3월호 표3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벗 10월호 95페이지

복음의 관점에서 본 예술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4월호 1페이지

복음의 빛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73페이지

복음의 율법
복음이 안겨 주는 안전성, 윌리엄 알 브레드포드, 성도의 벗 2월호 97페이지

복음이 안겨 주는 안정성
윌리엄 알 브레드포드, 성도의 벗 2월호 97페이지

복장 표준
질의 응답, 아메스 지 켈, 성도의 벗 3월호 38페이지

복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123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제이 리차드 클라크, 성도의 벗 11월호 25페이지
창고 자원 제도, 성도의 벗 10월호 128페이지
나부터 복지 사업, 에이 디오도어 터틀, 성도의 벗 10월호 135페이지
복지 사업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8페이지

복지에 관한 신권 정원회의 책임
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벗 2월호 129페이지

복지 사업

말일의 사마리아인,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138페이지

복지 사업
주님의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벗 2월호 8페이지

복지 사업
주님의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벗 2월호 8페이지
복지에 관한 신권 정원회의 책임, 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벗 2월호 129페이지
복지 사업, 실친의 복음,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114페이지

복지 사업; 실친의 복음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114페이지

복지 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121페이지

불, 바바라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대해 주었다, 성도의 벗 7월호 48페이지

볼 수 있는 손가락
일레인 시 스미스, 성도의 벗 3월호 22페이지

봉사
주님의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벗 2월호 8페이지

부모의 책임
신권의 책임,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60페이지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임
렉스 시 리브, 성도의 벗 10월호 113페이지

부수, 에프 엔지오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성도의 벗 2월호 105페이지

부정적인 감정
질프앗의 유향,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2월호 88페이지

부할
예수님은 내 친구, 브라이언 우드퍼드; 성도의 벗 3월호 24페이지
존 테일러, 망명지에서 보낸 편지, 성도의 벗 11월호 33페이지

불멸
의의 기초,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3페이지

불의 희생
토마스 케이 그리피스, 성도의 벗 11월호 8페이지

브라운, 빅터 엘

사랑의 안식처, 성도의 벗 10월호 138페이지
금식의 법, 성도의 벗 2월호 125페이지

브레드포드, 윌리엄 알

복음이 안겨 주는 안전성, 성도의 벗 2월호 97
페이지

브리감 영

유진 잉글랜드의 연재 기사에서 발췌, 성도의
벗 8월호 38페이지

비극의 주기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19페이지

빛과 약속

복음의 빛,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73
페이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윌리엄 지 다이어, 성도의 벗 4월호 44페이지

(人)

사랑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대해 주었다, 바라라 불,
성도의 벗 7월호 48페이지

최고의 법,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149페이지

우리는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벗 34페이지

사랑의 안식처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벗 10월호 138페이지

상담

주님의 방법대로,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0월호 141페이지

상호부조회

방문 교육의 목적,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2월호 2페이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선교사

자매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자 한다면, 린
넬 마, 성도의 벗 6월호 11페이지

선교 사업

그녀가 돌봐 주었기 때문에, 헬렌 제이 세일리,
성도의 벗 4월호 6페이지

포도가 된 선교사, 멜빈 레비트, 성도의 벗 4월
호 41페이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한 꼬마 선교사, 페기밀즈,
성도의 벗 5월호 28페이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로버트 엘 심슨, 성도의
벗 10월호 54페이지

기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진 선교 지구, 던
엘 라슨, 성도의 벗 5월호 4페이지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 성도의 벗 3월호 21페이지

회생—선교사의 모습, 애드니 와이 고마쯔, 성
도의 벗 2월호 40페이지

구원의 봉사, 에이 더어더어 터틀, 성도의 벗 2
월호 81페이지

선교사 준비

청년—참다운 수호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
도의 벗 2월호 84페이지

선교사인 여업자의 여행,

제임스 오 메이슨, 성도의 벗 6월호 34페이지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성도의 벗 4월호 44페이지

성경 쿼즈

델마드 중, 성도의 벗 6월호 24페이지

성공을 안겨 주는 시귀

스터얼링 더블류 실, 성도의 벗 10월호 102페이지

성공적인 결혼 생활

오 레슬리 스톤, 성도의 벗 10월호 87페이지

성명서

우리는 계시의 인도를 받았읍니다, 포드 우드
럼, 성도의 벗 12월호 14페이지

성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성도의 벗 10월호 36페이지

성신의 은사

어머니의 통찰력, 바라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6월호 14페이지

성약

성찬과 성약, 더블류 쿨 더럼 이세, 성도의 벗
7월호 15페이지

성찬

질 의 응답, 엘리올 더 란다우, 1978년 성도의
벗 7월호 11페이지

성찬과 성약

더블류 쿨 더럼 이세, 성도의 벗 7월호 15페이지

성탄절

그리스도와 성탄절, 데이비드 오 맥케이, 성도
의 벗 12월호 표3

성탄절의 참 의미

제프리 알 홀랜드, 성도의 벗 12월호 7페이지

선한 사마리아인

말일의 사마리아인,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138페이지

선한 일

힘써 노력하며, 조셉 앤더슨, 성도의 벗 10월호 106페이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조지 피리, 성도의 벗 5월호 39페이지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

성도의 벗 3월호 21페이지

세일리, 헬렌 제이

그녀가 돌아 주었기 때문에, 성도의 벗 4월호 6페이지

샘웨이, 나오미 엠

미래를 위한 기초, 성도의 벗 8월호 14페이지

소채 가꾸기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김볼,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순결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2월호 43페이지

순종

의로운 순종의 축복, 델버트 엠 스테이플리, 성도의 벗 2월호 25페이지

우리는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성도의 벗 2월호 34페이지

의로운 음성에 순종함,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61페이지

복음이 안겨 주는 안전성, 성도의 벗 2월호 97페이지

영적 지도자를 구하라, 진 알 쿡, 성도의 벗 10월호 99페이지

진리를 알찌니,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0월호 18페이지

스미스, 바바라 비

노년기에 대비함, 성도의 벗 10월호 132페이지

어머니의 통찰력, 성도의 벗 6월호 14페이지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성도의 벗 2월호 135페이지

스미스, 일레인 시

볼 수 있는 손가락, 성도의 벗 3월호 22페이지

스미스, 엘드리드 지

결정, 성도의 벗 10월호 43페이지

스미스, 요셉

친절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 케네스 더블류 간프리, 성도의 벗 12월호 10페이지

요셉 스미스의 상처를 수술한 외과 의사, 르로

이 에이 윈스린, 성도의 벗 11월호 10페이지
시온 진영, 로날드 더블류 워커, 성도의 벗 12월호 37페이지

스미스, 필립 시

간접 경험의 가치, 성도의 벗 3월호 18페이지

스테이플리, 델버트 엠

의로운 순종의 축복, 성도의 벗 2월호 25페이지
질의 응답, 성도의 벗 5월호 9페이지

스토우웰, 얼

키가 작은 벤 할아버지, 성도의 벗 5월호 13페이지

스튜운, 오 레슬리

성공적인 결혼 생활, 성도의 벗 10월호 87페이지

스트래튼, 앨리스

가족의 관심사인 침례, 성도의 벗 8월호 27페이지

가정은 안식처, 성도의 벗 6월호 21페이지

시그밀러, 돈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성도의 벗 12월호 21페이지

시대

노년기에 대비함,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10월호 132페이지

시온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성도의 벗 10월호 123페이지

시온 진영, 로날드 더블류 워커, 성도의 벗 12월호 38페이지

시온을 찾아서, 1830-1835

글랜 엠 레오나드, 성도의 벗 12월호 29페이지

시온 진영

로날드 더블류 워커, 성도의 벗 12월호 38페이지

시람 비축

가정 생산과 비축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문의되는 질문, 성도의 벗 5월호 43페이지

신전

목적물을 갖고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월호 31페이지

질의 응답, 델버트 엠 스테이플리, 성도의 벗 5월호 7페이지

신권의 책임

매리는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60페이지

신권 축복

신권의 열 가지 축복, 브루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2월호 48페이지

신권의 축복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2월호 43페이지

신리

여호와를 의뢰하라,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57페이지

신앙의 기도

토마스 에스 문슨, 성도의 벗 10월호 28페이지

“신을 들레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벗 10월호 51페이지

신전 결혼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 제이 에이 패리, 성도의 벗 11월호 13페이지

신전 사업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돈 시그밀러, 성도의 벗 11월호 13페이지

신전의 토틀, 거트루드 엠 리차즈, 성도의 벗 4월호 24페이지

신전의 토틀

거트루드 엠 리차즈, 성도의 벗 4월호 28페이지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및 중등부

범세계적인 교육, 조 제이 크리스티슨, 성도의 벗 8월호 44페이지

신학 연구원 중등부

인생의 눈을 뜨다, 성도의 벗 8월호 48페이지

실, 스타얼링 더블류

성공을 안겨주는 짓귀, 성도의 벗 10월호 102페이지

십손, 로버트 엘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성도의 벗 10월호 54페이지

십대의 개척자

고든 어빙, 성도의 벗 11월호 37페이지

십자가에 못박힘

예수님은 내 친구, 브라이언 우드퍼드, 성도의 벗 3월호 24페이지

(O)

아버지가 될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 오슨 스코트 카드, 성도의 벗 11월호 4페이지

아론 신권

신권의 책임,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60페이지

아멘

질의 응답, 로버트 에프 클라이드, 성도의 벗

11월호 18페이지

아무어, 아노벨

좋은 이웃인 석배, 성도의 벗 4월호 24페이지

아버지의 집

교회 관리인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성도의 벗 3월호 14페이지

아이에게 가르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8월호 1페이지

악을 이김

길르앗의 유향,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2월호 107페이지

안식일—기쁨의 날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7월호 1페이지

안식일

적극적이 되라, 오슨 스코트 카드, 성도의 벗 7월호 13페이지

질의 응답, 스티브 길리랜드, 성도의 벗 7월호 7페이지

안식일—기쁨의 날,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7월호 1페이지

질의 응답, 로버트 제이 배틀, 성도의 벗, 7월호 10페이지

애급에 팔려간 요셉

여호와를 의뢰하라, 엘 톰 페리, 성도의 벗 1월호 79페이지

애쉬튼, 마빈 제이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의 벗 10월호 8페이지

앤더슨, 조셉

“힘써 노력하라” 성도의 벗 10월호 106페이지

어린이의 벗

성도의 벗 8월호 20페이지

어린 시절의 영향력

교회의 기본 단원인 가정울 강화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69페이지

어머니의 통찰력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6월호 14페이지

어빌, 고든

크리스찬의 개종, 성도의 벗 7월호 42페이지
십대의 개척자, 성도의 벗 11월호 37페이지

어린이아의 구원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3월호 3페이지

어린 양

마가렛 엘린, 성도의 벗 12월호 24페이지

어린이의 확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어새이, 로라 제이

교회 관리인의 곤경, 성도의 벗 3월호 11페이지

영적 인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성도의 벗 10월호 36페이지

엘린, 마가렛

어린 양, 마가렛 엘린, 성도의 벗 12월호 20페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해롤드 비 리, 성도의 벗 3월호 46페이지

여성(들사)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2월호 135페이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하나님의 딸, 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벗 10월호 12페이지

영감

자유 의지냐? 영감이냐? 브루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5월호 31페이지

영의 자녀

기적, 켈리 존슨, 성도의 벗 7월호 21페이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다, 해롤드 비 리, 성도의 벗 3월호 46페이지

영적인 기근

윌리엄 지 다이어, 성도의 벗 5월호 표3

영적 지도자를 구하라

진 알 쿡, 성도의 벗 10월호 99페이지

예언

하나님과 인간의 일,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2월호 30페이지

비극의 주기,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19페이지

예언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벗 10월호 95페이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118페이지

그리스도의 재림,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10월호 114페이지

교회 역사에서의 특별한 순간,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성도의 벗 2월호 37페이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11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성경 퀴즈, 델마 드 중, 성도의 벗 6월호 24페이지

이지

예수 그리스도,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111페이지

물문경, 엔 엘든 태너, 성도의 벗 1월호 1페이지

성탄절의 참 의미, 제프리 알 홀랜드, 성도의 벗 12월호 7페이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진리를 알지니, 엔 엘든 태너, 성도의 벗 10월호 18페이지

예수님은 내 친구

브라이언 우드퍼드; 성도의 벗 3월호 24페이지

예술

복음의 관점에서 본 예술,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4월호 1페이지

오만, 수단

초등학교회 100년사, 성도의 벗 8월호 7페이지

오 사랑스러운 아침

진 더블류 킴먼, 성도의 벗 8월호 33페이지

오스본, 앤 거

독신 기간, 부담인가 은사인가, 성도의 벗 6월호 31페이지

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요시히코 기꾸저, 성도의 벗 2월호 106페이지

온전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브렌다 헌트, 성도의 벗 3월호 32페이지

와이런드, 잭

초여름의 꽃들, 성도의 벗 3월호 40페이지

요셉 스미스의 상처를 수습한 외과 의사

드로이 에스 위스런, 성도의 벗 11월호 10페이지

용서

길러오의 유향,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2월호 88페이지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6월호 표3

용서의 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67페이지

용서의 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67페이지

용기

꼭대기에, 존 에이 그린, 성도의 벗 6월호 38페이지

다른 종류의 용기, 모린 엠스타인, 성도의 벗 6월호 26페이지

우드럽, 윌포드

우리는 계시의 인도를 받았읍니다, 성도의 벗 12월호 14페이지

우드퍼드, 브라이언

예수님은 내 친구, 성도의 벗 9월호 24페이지

우디와 나

베티 루 멜, 성도의 벗 4월호 20페이지

우리는 계시의 인도를 받았읍니다

윌포드 우드럽, 성도의 벗 12월호 14페이지

우정 증진

용서의 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67페이지

우리는 늘 함께 있어왔습니다.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벗 2월호 34페이지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

제이 에이 패리, 성도의 벗 11월호 13페이지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0월호 147페이지

워스린, 크로이 에스

요셉 스미스의 상처를 수술한 외과 의사, 성도의 벗 11월호 10페이지

워커, 로날드 더블류

시온 진영, 성도의 벗 12월호 29페이지

의로운 음성에 순종할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61페이지

의로운 순종의 축복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성도의 벗 2월호 25페이지

의의 기초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2월호 3페이지

의화

질의 응답,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성도의 벗 5월호 8페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벗 2월호 77페이지

이혼

행복한 결혼 생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도의 벗 2월호 12페이지

잉글랜드, 유진

브리감 영, 성도의 벗 8월호 38페이지

인생

기적, 웨리 존슨, 성도의 벗 7월호 21페이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윌리엄 지 다이어, 성도의 벗 4월호 44페이지

인생의 눈을 뜨다

성도의 벗 8월호 48페이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북음

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벗 4월호 37페이지

질

질의 응답, 스티브 길리랜드, 성도의 벗 7월호 7페이지

(ㄱ)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로버트 디 헤일즈, 성도의 벗 11월호 21페이지

자립

주님의 방법대로,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0월호 141페이지

자매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시고자 한다면

린 델 마, 성도의 벗 6월호 11페이지

자유

진리를 알지니,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0월호 18페이지

자유의지냐? 영감이나?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5월호 31페이지

자유 의지

자유 의지냐? 영감이나?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5월호 31페이지

결정, 엘드리드 지 스미스, 성도의 벗 10월호 43페이지

재정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성도의 벗 10월호 25페이지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6월호 표3

적극적이 되라

오슨 스코트 카드, 성도의 벗 7월호 13페이지

전설

바다물이 왜 짭까요, 성도의 벗 5월호 21페이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간증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다. 해롤드 비 리, 성도의 벗 3월호 46페이지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에즈라 테프트 멘슨, 성도의 벗 2월호 43페이지

정말 이루어졌읍니다

돈 시그먼러, 성도의 벗 12월호 21페이지

정서적인 건강

주님의 방법대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0월호 141페이지

정원회 복지 사업

부지에 관한 신권 정원의 책임, 고든 비 힐클리, 성도의 빛 2월호 129페이지

제147 반 연차 대회 보고

성도의 빛 2월호 1페이지

존 테일러, 망명 길에서 보낸 편지

성도의 빛 11월호 33페이지

존슨, 웨리

기적, 성도의 빛 7월호 21페이지

좋은 이웃인 석태

아노벨 아무어, 성도의 빛 4월호 24페이지

좋은 이웃 클럽

메리 에스 다이비스, 성도의 빛 8월호 24페이지

주님의 방법대로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0월호 141페이지

주님의 방법

토마스 에스 문슨, 성도의 빛 2월호 8페이지

주를 의지하라

매리온 지 롭니, 성도의 빛 2월호 57페이지

주일 학교

영적인 기준, 윌리엄 지 다이어, 성도의 빛 6월호 표3

좋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에 관한 새로운 활동

조지 에이치 퍼저, 성도의 빛 12월호 38페이지

죽음

질의 응답, 성도의 빛 11월호 18페이지

준비

신을 들며라, 하워드 더블류 런터, 성도의 빛 10월호 51페이지

즐거운 하루카!

보니 뉴튼, 성도의 빛 12월호 27페이지

지도자

꼭대기에, 존 에이 그린, 성도의 빛 6월호 38페이지

물문경,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빛 1월호 1페이지
영적 지도자를 구하라, 진 알 콕, 성도의 빛 10월호 99페이지

지혜의 말씀

불의 희생,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성도의 빛 11월호 8페이지

진리는 무엇인가

존 에이치 반덴버그, 성도의 빛 10월호 83페이지

진리를 알지니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빛 10월호 15페이지

진리

진리가 무엇이나? 존 에이치 반덴버그, 성도의

빛 83페이지

진리를 알지니,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빛 10월호 18페이지

질의 응답, 성도의 빛 7월호 7페이지

어린 아이의 구원, 브루스 알 맥콩키

성도의 빛 3월호 3페이지

질의 응답

기도나 말씀을 마칠 때 왜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로버트 에프 클라이드, 성도의 빛 11월호 18페이지

내가 아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이 교회의 역원으로 지지를 받게 될 때 지지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까? 만일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치 딘 가렛, 성도의 빛 4월호 9페이지

우리들 자자가 전세에서 이미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어서 이 지상에서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찾아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스티브 질리랜드, 성도의 빛 7월호 16페이지

신전에 다녀온 자매들에게는 소매가 달린 긴 복장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왜 신전에 다녀오지 않은 자매에게는 이와 똑같은 복장 표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메스 지 캡 성도의 빛 3월호 38페이지

어린이가 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성찬을 취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엘리올 디 란다우, 성도의 빛 7월호 11페이지

성경상으로 볼 때 안식일은 제칠일이라고 생각되는 때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로버트 제이 매튜, 성도의 빛 7월호 10페이지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위한 열쇠를 받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장로로 성임될 때입니까? 선교사로 성명될 때입니까? 아니면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입니까? 머레이 러슨, 성도의 빛 9월호 7페이지

신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의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텔버트 엘스 테이플리, 성도의 빛 5월호 8페이지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최근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면 죽은 아들도 이 지상에서 우리 가족의 일부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빈 알 반담, 성도의 빛 11월호 19페이지

집회

적극적이 되라, 오스 스코트 카드, 성도의 빛 7

월호 13페이지

집회소

아버지의 집, 교회 관리인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성도의 벗 3월호 14페이지
교회 관리인의 곤경, 로라 게이 어세이, 성도의 벗 3월호 11페이지

(天)

참여

우리집 가정의 밤, 성공의 열쇠 글렌 더블류 하퍼, 성도의 벗 4월호 11페이지

참고 자료 제도

리차드 클라크, 성도의 벗 10월호 128페이지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벗 2월호 15페이지

창작

초여름의 꽃들, 잭 와이 런드, 성도의 벗 3월호 40페이지

창의성

반에서의 창의성, 로로이 바니, 성도의 벗 5월호 10페이지

반에서의 창의성

로로이 바니, 성도의 벗 5월호 10페이지

첫번째 시험

오 사랑스러운 아침, 진 더블류 집먼, 성도의 벗 8월호 33페이지

청결

교회 관리인의 곤경, 로라 게이 어세이, 성도의 벗 3월호 11페이지

청녀—참다운 수호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도의 벗 2월호 84페이지

청소년

결경, 엘드리드 지 스미스, 성도의 벗 10월호 39페이지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에즈라 테프트 벤슨, 성도의 벗 2월호 43페이지

다섯개의 “수” 매리온 디 행스, 성도의 벗 2월호 52페이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조지 피 리, 성도의 벗 10월호 39페이지

주를 의지하라,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2월호 57페이지

추천받기에 합당한 자, 엘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0월호 64페이지

청지기 직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엘 엘튼 태너, 성도의 벗 10월 147페이지

칭찬할만한 일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성도의 벗 3월호 표3

초등협회

어린이의 벗, 성도의 벗 8월호 20페이지

케이프 타운 어린이들의 신앙, 성도의 벗 8월호 19페이지

미래를 위한 기초, 나오미 엠 셉페이 성도의 벗 8월호 11페이지

섬책이 자매와 대담, 성도의 벗 8월호 14페이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118페이지

어린이의 생활을 살피우는 초등협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도의 벗 10월호 32페이지

아이에게 가르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8월호 1페이지

초등협회 100년사

수잔 오만과 캐롤 매드슨, 성도의 벗 8월호 7페이지

초여름의 꽃들

잭 와이 런드, 성도의 벗 3월호 40페이지

총관리 역원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엘 엘돈 태너, 성도의 벗 2월호 23페이지

추천 받기에 합당한 자

엘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0월호 64페이지

축복

킴블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 노만 빈센트 필, 성도의 벗 4월호

축복사의 축복

어머니의 통찰력,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6월호 14페이지

치료

성공을 안겨 주는 시귀, 스티얼링 더블류 실, 성도의 벗 10월호 102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게이 리차드 클라크, 성도의 벗 11월호 25페이지

친절

좋은 이웃인 석태, 아노벨 아무어, 성도의 벗 4월호 24페이지

좋은 이웃 클럽, 매리 에스 다이버스, 성도의 벗 8월호 24페이지

그들은 진과 다름없이 대해 주었다, 성도의 벗 7월호 48페이지

친절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 케네스 더블류 잔프리, 성도의 벗 12월호 10페이지

친절한 말들을 서로하세,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5월호 1페이지

친절한 말들을 서로하세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5월호 1페이지

친절한 여언자 요셉 스미스

케네스 더블류 갈프리, 성도의 벗 12월호 10페이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한 꼬마 선교사

페기딜즈, 성도의 벗 5월호 28페이지

침례

가족의 관심사인 침례, 앨리스 스트래튼, 성도의 벗 8월호 27페이지

침면, 진 더블류

오 사랑스러운 아침, 성도의 벗 8월호 32페이지

침찬할만한 일을 구하여 마치 않는다

에зра 매프트 벤슨, 성도의 벗 3월호 표3

최고의 법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0월호 149페이지

최고집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벗 2월호 107페이지

(K)

카드, 오스 스코트

적극적이 되라, 성도의 벗 7월호 13페이지

캡, 아데스 지

질의 응답, 성도의 벗 3월호 38페이지

커스버트, 데릭 에이

구세주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성도의 벗 10월호 109페이지

컬리모어, 제임스 에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도의 벗 10월호 36페이지

케이프타운 어린이들의 신앙

성도의 벗 8월호 19페이지

캠튼, 세릴 콘티

금식—기쁨을 주는 은사, 성도의 벗 7월호 37페이지

코리의 확인

엘튼 린쇼튼, 성도의 벗 5월호 26페이지

룩, 진 알

영적 지도자를 구하라, 성도의 벗 10월호 99페이지

크리스찬의 개종

고든 어빙, 성도의 벗 7월호 42페이지

크리스틴슨, 존 제이

범세계적인 교육, 성도의 벗 8월호 44페이지

클라이드, 로버트 에프

질의 응답, 성도의 벗 11월호 18페이지

클라크, 제이 리차드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벗 11월호 25페이지

키가 작은 벤 할아버지

얼 스트우웬, 성도의 벗 5월호 13페이지

킴블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

노만 빈센트 필, 성도의 벗 4월호 표3

킴블 대관장

교회 역사에서의 특별한 순간, 더블류 그랜트 랭거터, 성도의 벗 2월호 37페이지

킴블, 스펜서 더블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성도의 벗 10월호 123페이지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벗 6월호 표3

복음의 관점에서 본 예술, 성도의 벗 4월호 1페이지

복지 사업, 실천의 복음, 성도의 벗 2월호 114페이지

의의 기초, 성도의 벗 2월호 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벗 2월호 111페이지

교회의 활력소, 성도의 벗 7월호 40페이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성도의 벗 10월호 118페이지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성도의 벗 10월호 155페이지

결혼으로 하나가 됨, 성도의 벗 6월호 1페이지

용서의 힘, 성도의 벗 2월호 67페이지

안식일—기쁨의 날, 성도의 벗 7월호 1페이지

교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강화함, 성도의 벗 10월호 69페이지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도의 벗 8월호 1페이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성도의 벗 10월호 3페이지

방문 교육의 목적, 성도의 벗 12월호 2페이지

(E)

터틀, 에이 디오도어

구원의 봉사, 성도의 벗 2월호 81페이지

나부터 복지 사업을, 성도의 벗 10월호 135페이지

태너, 앤 엘든

말일의 사마리아인, 성도의 벗 2월호 138페이지

구세주의 인도에 따라, 성도의 벗 1월호 1페이지

복음의 빛, 성도의 벗 2월호 69페이지

의로운 음성에 순종함, 성도의 벗 2월호 61페이지

교회 역원 지지, 성도의 벗 2월호 23페이지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성도의 벗 10월호 26페이지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성도의 벗 10월호 147페이지

추천받기에 합당한 자, 성도의 벗 10월호 64페이지

진리를 알찌니, 성도의 벗 10월호 18페이지

테일러, 존

존 테일러, 망명 길에서 보낸 편지, 성도의 벗 11월호 33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제시, 성도의 벗 10월호 57페이지

(丑)

파우스트, 제임스 이

행복한 결혼 생활, 성도의 벗 2월호 12페이지

패리, 제이 에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 성도의 벗 11월호 13페이지

현대의 기적? 성도의 벗 7월호 32페이지

패커, 보이드 케이

길르앗의 유랑, 성도의 벗 2월호 88페이지

목적을 갖고 가르침, 성도의 벗 1월호 31페이지

주님의 방법대로, 성도의 벗 10월호 141페이지

퍼지, 조지 에이치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에 관한 새로운 활동, 성도의 벗 12월호 38페이지

페리, 엘 톱

가장의 역할과 책임, 성도의 벗 2월호 93페이지

여호와를 의뢰하라, 성도의 벗 10월호 79페이지

포로가 된 선교사

멜빈 레비트, 성도의 벗 4월호 41페이지

포올맨, 로널드 이

나 혼자서 이자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벗 10월호 46페이지

피녹크, 휴 더블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일, 성도의 벗 2월호 104페이지

피터슨, 마크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성도의 벗 10월호 95페이지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성도의 벗 2월호 15페이지

피터슨, 에이치 버크

가장의 입구, 성도의 벗 2월호 132페이지

필, 노만 빈센트

김본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 성도의 벗 4월호 표3

(ㅎ)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10월호 47페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일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2월호 30페이지

하나님의 딸

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벗 10월호 12페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1월호 2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성도의 벗 10월호 36페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10월호 47페이지

하누카!

즐거운 하누카! 보니 뉴튼, 성도의 벗 12월호 27페이지

하퍼, 글렌 더블류

참여, 우리 집 가정의 밤, 성공의 열쇠, 성도의 벗 4월호 11페이지

학습이란 씨앗과 같아서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3월호 16페이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일

휴 더블류 피녹크, 성도의 벗 2월호 104페이지

합당성

추천받기에 합당한 자, 엔 엘돈 배너, 성도의 벗 10월호 64페이지

행복

여호와를 의뢰하라, 엘 톱 페리, 성도의 벗 10월호 79페이지

행복한 결혼 생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도의 벗 2월호 12페이지

헌터, 하워드 더블류

신을 들매라, 성도의 벗 10월호 51페이지

힌트, 브렌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의 벗 3월호 32페이지

헤이트, 데이비드 비

어린이의 생활을 살피우는 초등학교, 성도의 벗

10월호 32페이지

청녀—참다운 수호자, 성도의 벗 2월호 84페이지

헤일즈, 로버트 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벗 11월호 21페이지

현대의 기적

제이 에이 패리, 성도의 벗 7월호 32페이지

홀랜드, 제프리 알

성탄절의 참 의미, 성도의 벗 12월호 7페이지

확인

코리의 확인, 엘튼 린쇼튼, 성도의 벗 5월호 26페이지

회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6월호 표3

회복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벗 10월호 95페이지

동트니 날이 밝는다,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벗 10월호 15페이지

희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0월호 123페이지

희생—선교사의 모습

애드니 와이 고마즈, 성도의 벗 2월호 40페이지

“힘써 노력하며”

조셉 앤더슨, 성도의 벗 10월호 106페이지

헝글리, 고든 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의 벗 10월호 91페이지

복지에 관한 신권 정원회의 책임, 성도의 벗 2월호 129페이지

성도의 벗 구독권을 선물로 주려면...

성도의 벗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기 위해서 1년이나 6개월 장기 구독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금액과 함께 [성도의 벗사]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편 번호 110,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74-6832, 성도의 벗사.

성도의 벗 12개월분(1,200원) 6개월분(600원)

수취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구독 기간: _____년 _____월호부터 _____년 _____월호까지

회원, 비회원, 일부만이 회원인 가족

동봉된 송금액: _____ 원

발신인:

성명 _____

와드/지부 _____

스테이크/지방부 _____

주: 여러 사람에게 장기 구독권을 보내고 싶으면 다른 품이에 위의 신청서를 복사하여 [성도의 벗사]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